朝鮮日報
夕刊 七日(土)
本紙朝夕刊十面

各國全權團다到着 軍縮會議 九日正式開會

太平洋關係政治的問題討議其他等으로 會議前途는벌서悲觀

【倫敦六日發聯合】米佛伊三國全權團의 到着으로 海軍縮少本會議에臨할 五個國政府代表는 마츰내 倫敦에會集하엿다 各國代表는 八日 個別的으로 英國政府當局과會見하고 豫備的 妥協을遂한後 九日午前十時半부터 外務省로카르노室에서 열릴 開會式에 參加하야 本格的 討議에入하게되엿다 開會式當日은 特히 招請國을 代表하야 볼드윈首相이開會辭를 述하고 繼續하야 米國代表노만데비스氏 濠州代表 카나다代表 佛國代表 愛蘭代表 伊太利代表의 順序로 各其自國의立場을 闡明한다음 永野全權은 不脅威不侵略을 基調로하는 日本政府의軍縮鐵則을 强調하고 다시뉴질란드、南阿兩國代表의演說로써 開會式을마추고 委員會의 組織으로 移行할豫定이다 그리고 會議의前途에對하여는 悲觀的觀測이强하야 倫敦外交界에서는 左의見解가 有力하다 卽

一、日本代表가 共通最大限의設定에依한 海軍力의均勢에反對하야 具體的討議에 入하기를 拒否하면 會議는 드듸여 停頓에陷할것이다

一、英國代表部는 當初부터 停頓을 誘致하기를 避하기爲하야 爲先技術的討議에 入하는 作戰을 取할것이나 倫敦條約廢棄에서 由來하는 新情勢를 早晩檢討하지안흐면 안되고 日英米三國代表의 主張이 對立되여 會議는 必然的으로 難關에 逢着할것이다

一、華府海軍條約은 中國에 關한 九個國條約 其他 太平洋 乃至 東亞의 政治的機構를 基礎로하고 그우에 樹立되여잇는데 새로 華府、倫敦兩條約에 代位할 海軍協定을 締結함에는 太平洋及 東亞의 國際的政局에 對하야 硏究하고 이에 調整을 加하는것이 先決要件이다 太平洋島嶼防備制限 其他에 關聯한 政治的問題가 會議에 導入될것은 避키困難하다

그리고 英國政府에서는 皇妹 벅토리아內親王薨去로 公式文書에 一切黑線을 둘럿는데 입빠른 外人記者團은 黑線文書는 會議의 前途를 端的으로示唆하는 豫兆라고말하고잇다

決裂以外無途!

米代表部도何等의對策이업다 米側消息通의豫想

【倫敦六日發電通】六日着英한海軍軍縮會議 米國代表部 有力者側에서 確聞한바에依하면 米國代表部는 會議를成功케할 何等成算잇는 新提案도 準備하여가지고오지안코 豫備會商 決裂原因에對하야 解決을與할 如何한 對策도 準備하지안코 全然空手로 倫敦에進出하야 現狀維持主義를 基調로하는 米國側從來의 方針에 列國이 相互接近하여주면 조타는 영러리업는 希望下에 來英한것이 判明되엿다 따라서 米國代表部의 對會議策은 相對側의 態度를보아 動한다는 受働的의것으로 爲先 米國에서自進하야 難關을解決할 提案을 내이리라고는 全然期待할수업는模樣이며 米國側消息通側에서는 決裂以外에는 거이方途가 업스리라고 豫想하고잇다

五個國代表部 完全陣容整齊

【倫敦六日發電通特派員發】軍縮會議伊太利代表部員中 倫敦常駐그란디大使等을 除한 特派의一行은 六日午後五時二十五分 빅토리아停車場着 佛國代表部도亦是先發隊는 同列車로着英、後發隊는 首席隨員로베르中將、쟈근·칼르氏等도 午後十一時十分着、모도日米代表가 到着할때와同樣의出迎을 政府로부터 밧고 着任하엿는데 玆에 五個國代表部는 六日로써 完全集合을 終了하고 九日 開會를 기다리기로 되엿다

【倫敦六日發聯合】主席全權노만데비스氏를 爲始하야 米國全權團은 六日午後三時四十五分 와털로 停車場에 到着하야 直時 크로브가덴의 米國大使館에入하엿다

【倫敦六日發聯合】佛國全權團異門委員레크蘭督以下一行은 六日午後五時 二十分 倫敦에 到着하엿다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亞米利加海軍의太平洋防備强化 (二十)

雲崗生

여기서 또한가지 우리가 考察할것은 太平洋上의 海軍根據地에 對한 日米兩國의 對立問題다。米國은 旣述한바와가티 그 所謂 極東門戶開放主義를 擁護하기爲하야 그海軍政策에 잇서서 渡洋作戰主義、따라서 大艦巨砲主義를 採用하야 十有餘年間을 두고 그海軍을 整備해 온 나라인데 이런 主義下에서의 米國海軍의 目標는 日本海軍을 相對로 하자는데 잇다。米國海軍은 日本海軍을 假想敵으로 하야 個戰、그準備를 不怠하고 잇다。米國海軍은 將次、日本海軍을 相對로 西太平洋上에서 太平洋의 制海權及 制空權의 爭霸戰을 하고야 말겟다는 決心을 가진者이다。따라서 米國의 渡洋作戰主義가온데는 太平洋上에 될수잇는대로 만흔 海軍根據地를 두고、그施設을 擴大强化할수밧게 업다는 主義가 內包된것으로 볼수밧게 업다。아니게 아니라、米國은 太平洋上의 海軍根據地에 對하야 이런 主義를 堅持하고 잇다。이런 主義下에서 米國은 華盛頓海軍條約當時에도 布哇를 (前述로 說明한) 海軍根據地現狀維持條項(防備制限規定)으로부터 除外하엿고、또한 이런 主義下에서 米國은 比律賓에 獨立을 許하되、거기 잇는 海軍根據地에 對해서는 如前히 自國이 가지고 잇도록 한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더 考察을要할것은 米國은 그太平洋上에잇는 布哇니、『미드웨이』니、『구암』이니、比律賓이니 하는 旣存海軍根據地의 施設로 滿足치 아니하고、更히 一步를進하야 他國所有의 島嶼까지라도 買收하야 거기다가 새로 海軍根據地를 施設할 計劃을 가지고 잇다는 一點이다。

그런데 이點은 米國、軍縮問題에 잇서서 (一) 어디까지든지 大艦巨砲主義를 쓰는것、(二) 比率에 잇서서 日本에 對하야 高率을 主張하는것 等諸點과 一脈相通하는 바가 잇는것인故로、海軍問題의 前途를 考察하는데 잇서서는 빼여노치 못할 問題다。

그러면 米國은 太平洋上의自國의屬地인 島嶼에다가 어떠한 施設을하며、또한 米國은 어떠한 方法에 依하야 어떤나라로부터 島嶼를 買收하려는가하면 그것은 左揭諸摘取를 보면 明白히 알수가 잇다。

『루즈벨트大統領은 布哇西方二千『마일』에서 日本의 南洋委任統治諸島에 隣接한 우에크島及킹그만·리-푸、쫀스톤、싼드의 三小島를 內務省所管으로부터 海軍省에 移管할 旨를 今年(一九三五年)一月十九日에 聲明햇다。우워크島는 約一『마일』平方의 無人島로서 一九二二年米國海軍視察點이 着陸해 본 일이 잇슨後부터 全然 내버려두엇든 섬인데 지난 봄에 行한 米中連絡太平洋商業飛行의 着陸點으로 미드웨이、구암과 同樣의 施設을 한것이다。同島는 錨地가 될 자리는 업스나、섬으로부터 조곰 나가면 小艦艇이 碇泊할 자리는 잇스며 또礁湖는長五千米突 深二尋半으로서 飛行機는勿論 大型飛行艇도 離着水가 自由로 될만하다。따라서 商業上價値는 勿論、軍事上價値도 相當히 크다。그他三島도 避難飛行場으로 利用된다고한다。』

또한 米國의陸海軍雜誌에는 再昨年、左揭意味의 內容이 실니엇다。

『英佛兩國은 다 海軍國으로서 大西、太平兩洋上에 多數의 島嶼를 가지고 잇다。그러고 그 島嶼中에는 經濟的으로는 何等의 價値가 업서도 다만 他國海軍이 이것을 利用하는것을 防害하는 目的으로 가지고 잇는것이 잇다。그러나 英佛兩國에 對해서는 아모 必要가 업는 島嶼도 米國에 對해서는 貿易及海上利權의 保護를 爲하야 價値가 큰것이 잇다。따라서 歐洲各國이 갑지 못하고잇는 對米戰債問題의 打開를 爲하야 此等의 價値잇는島嶼를 戰債輕減의 代償으로서 米國이 讓渡를 受하야 海軍根據地로 하는 策은 한 妙案일것이 分明하다。最近 佛蘭西의 戰債不拂에 對하야 스팀손長官이 『戰債의 現金支拂이 不可能하면 다른 方法으로 辨償하라。』라고 한것은 以上의 意味를 暗示한것이라고 할수가 잇다。米國은 歐洲大戰後、領土그他 戰利品의 分配에 參與하지 아니하엿다。게다가 戰債까지 米國이 輕減해주어야 된다고 하면、우리 米國은 輕減의 代償으로 어떠한 價値만흔것을 要求할수밧게 업는것이다。그러타고하야 米國은 白耳義나 和蘭처럼 領土를 割取함과 가튼 廣大한 領土를 要求하는것이 아니다』

前揭를 보면 前記兩大洋特히 太平洋上의 海軍根據地에 對해서 어떠한 意圖를 가지고 잇는가가 明白히 알수가잇는 同時에 英佛로부터 戰債輕減代償으로 島嶼를 讓受하겟다는것이 더욱 妙한것을 알수가잇다。 (續)

難題만흔北中時局 急轉直下로解決?

國府의自治委員會設置承認回訓到着 幣制改革의北中除外도容認

【北平七日發電通至急報】南京政府로부터 六日夜 何應欽氏에게 北中自治防共委員會의 設置承認回訓이잇서 北中時局은 急轉直下로 解決에 接近하엿다

【北平七日發電通至急報】南京政府는 宋哲元氏等의 自治派의要望을 容認하야 幣制改革의 北中除外를 正式으로 容認하엿다 卽 自治派의主張은 玆에 貫徹된셈이다

何氏를首班으로 國府面目維持

◇…解決辦法內容

【天津七日發聯合】北中問題에關한 何應欽氏의 電請에 對하야 六日夜 南京政府로부터 妥協辦法이 到着하엿는데 確聞한즉

一、北中自治를 承認하나 依然 國民政府의 羈絆을 脫出하는것이아니며 何應欽氏로하여금 自治의 主班이되게할

一、赤化共同防衛를 爲하야 日中提携를行함

一、北中에 新通貨政策을實施함

一、自治區域을 冀察二省平津兩市로함

그리고 南京政府의 面目을세워 自治制를 斷行하려는것인데 今日北平에서 何應欽氏는 蕭振瀛氏等各方面과 妥協工作을 繼續하려는模樣인데 그推移는注目되여잇다

中央對西南派의 根本的對立解消

人事異動과國府今後

【南京六日發聯合】汪精衛氏危禍에 뒤를니여 開會된 一中全會는 北中의動向如何에 依하여는 波瀾이 豫想되여 終始緊張裡에 議事를 進行하고잇섯는데 그結果는 完全히 蔣介石氏의 方針대로終了되엿다 特히 六日終局的으로 決定된 黨部及 國府의 改組는 마친내 蔣介石氏의 意思대로 決定되여 軍事委員長인 蔣介石氏自身이 汪精衛氏遭難의 뒤를 니여 行政院長이되여 玆에軍政의 大權을 一身에 掌握하야 名實共히 獨裁權을 確保하게되엿다 事實은 政府方面에는 西南派의 巨頭鄒魯氏의 考試院長 黨部方面에잇서서는 從來國民黨의 長老로 反府運動의 急先鋒이든 西南派의巨頭 胡漢民氏가 中常會主席에 決定 同副主席에 選任된蔣介石氏와 提携하야 國民黨의最高政策을 執掌하게되엿다 이것으로 過去四個年에 亘한 中央對西南의 對立은 根本的으로氷解되여 南中合作이 實現되게 되엿다 그러나 鄒魯氏의 考試院長은 政治또는實際運動에잇서서는位와 空名을것이며 一方胡漢民氏가 一中全會의決定대로 中常會主席就任을肯首할는지 안할는지는 多大한 疑問이다 그리고 假令胡漢民氏의 中常會主席이 實施된다고해도 實際政治에서 敬遠된셈이므로 西南派의 希望인中央政權獲得이 마친내不成功에 終了된것은 否定할수업다 最後에 兇彈에傷한 汪精衛氏의 中政會主席으로 曾時 前線에서떠나 오로지 黨部及 政府의連絡役으로 殘留하게된것은 蔣介石氏가 아직도 汪精衛氏의 協力에 期待하고잇는 證據라고 觀測되다。

行政院各部改造 數日中에斷行

汪精衛氏系는總退却하고 浙江閥이此에代位乎

【南京六日發電通】蔣介石氏는今明日中에 行政院長으로서의 行政院各部의 改造를 斷行할豫定으로 汪兆銘系의 外交部次長唐有壬、鐵道部長顧孟餘 同次長曾仲鳴 實業部長陳公博各氏의 總退却이 當然實現되여 이에代하야 浙江閥이 補充되는데 外交部長에는蔣作賓氏又는 張群氏가 決定될것이오 陳儀氏가 어떤 部長의 椅子에 就任할것이 確實되여잇다

重要改革內容

【南京六日發聯合】一中全會는六日 最終會議에서 黨部의 組織에對하야 重要改革을 決定하엿는데 改革要點은 左와如하다

一、中央常務委員會에 正副主席을設하고 委員數는 從來와如히함

二、黨政聯絡 最高指導機關으로 第二次全國代表大會에서 政治委員會를 設하고 다음에 第三次 全國代表大會 第一次中央全體會議에서 中央政治會議로 改正하엿는데 今回 다시中央政治委員會로한것

三、從來中央黨務委員會及、政治會議開催中은 中央執監委員及 同候補는 一齊히 出席하엿스나 今後는 組織大綱中에 指定한 一定한 人員만이 出席할수잇게된것 右는 會議가 議論分立과 紛糾의經驗에 鑑하야 弊害를除去하기爲함이다

四、黨中央執行委員會下에 對外黨務地方自治、公民經濟、文化事業의 四計畫委員會를 設한것 右는 憲政期에入할 準備라고 觀測되다

八面鋒

中華民國軍事委員長蔣介石氏、이번에는 아조行政院長으로政治上全責任을 지고 表面에登場。

◇

中央常務會議에 胡漢民을主席으로모시고、自己는 副主席에 中央政治會議에 汪兆銘을主席으로 모시고 自己는 副主席에。

◇

이모저모 重要한椅子는 全部獨占하얏스니、그야말로 蔣氏獨裁의 實現인가。

◇

上海通信에日、新外交部長으로 決定된張群氏는 知日派라고、親日派는아니고 日本을아는者라는말인가。

◇

山道이 미갓고 中野이제또간다하니 安達의 國民同盟의 柱石을빼내이格。

◇

政治는 鬪爭이라하지만은 孤軍血鬪는 雖中의難事、昔日의 選擧神도 入聖殿으로나、歸追할는지。

人事·集會

▲篠田李王職長官 渡東中이든바 八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着列車로歸任豫定

▲上內彦策氏(警務局保安課長)京城發渡滿全滿司法科長會議에列席

▲李光洙氏 二十日間豫定으로東京에旅行次八日午後三時發車로出發

▲史七鉉氏(咸鏡北道鰯油肥製造業水產組合理事)新任人事次來社

世界의注目은 伊에紛爭에서北中으로轉向

이機會에英米提携를策謀 英新聞紙一齊論難

【倫敦六日發電通】호어英外相이 五日 上院에서 外交問題의 演說을 行한以來 北中問題는 俄然 英國朝野一般의 關心을 集中하야 各新聞紙도 世界의注目은 바야흐로 伊에 紛爭보담도 全然 北中으로轉하게되엿다고 論하고잇다 特히 호어英外相과 同時에 米國헐國務長官이 北中問題의 聲明을 發한後부터 一層 北中問題에對한 英國民의 注意를 甚大케한 觀이잇다 英國으로서는 石油禁輸에 依하야 伊太利를壓迫하고 歐洲에잇서 覇權을 確保할必要에 迫到되여잇고 또 國際聯盟의强化를 圖하기爲하야는 此際 반드시 米國의 協力을 要할터이므로 北中問題가 緊迫한 이機會에 英米提携를 策하야 이에依하야 石油禁輸의目的을 達成하려하는 一石二鳥策에서 나온것이라고 解釋하는 傾向이만타 따라 軍縮會議에서도 英米兩國이 步調를合하야 側面으로부터 日本을牽制할 可能性도 豫見되는바 日本으로서는 相當히 警戒를 要하리라고 解釋되는데 日本의 軍縮代表部에서도 開會當日의 首席全權演說草案의 起草를進行하면서 이點에對하여도 周到한 注意를 拂하야 萬全의 外交陣을 베풀기爲하야 緊張裡에 着着準備를進行하고잇다

出淵大使正式解任

【東京電話聯合】前駐米大使出淵勝次氏는 過般遣米使節의 任務를마치고 歸國後 引退를申請하엿든바 七日 左와如히 發令되엿다

特命全權大使 出淵勝次 依願免本官

『데시에』離宮을 伊空軍이爆擊!

에國皇帝는無事避難햇스나 人命死傷二百十二名

【아디스아베바六日發電通】伊太利空軍은 데시에에 空爆을 加하야 에디오피아側에死者十名 負傷者八十名을내엿다 그中 爆彈의一個는 데시에離宮에 命中하야 微少한 損傷을與하엿다 同離宮에는 에디오피아皇帝陛下가 게시엿섯스나 彈報가 充分알마젓슴으로 安全한 地點으로 御避難하시엿다 그리고 에디오피아政府는 데시에에는 非戰地區임에도不拘하고 伊軍이 爆擊을 加한것은 國際法違反이라하야 直時 國際聯盟當局에 提訴하엿다

【데시에六日發聯合】에디오피아當局은 五日午前 伊太利空軍의 데시에爆擊被害를 調查中인데 被害는 當初의豫想以上으로 甚大하야 그後發表에依하면 死者總計十二名 重輕傷者二百名에 達하여 잇다한다 伊太利空軍이 投下한爆彈은 數百個에達한다고 信慮되는데 伊太利機一臺는 에디오피아軍의 高射砲에 射落되엿다고傳한다

各國全權의演說 五分間以內

【六日倫敦聯合特派員發】九日海軍會議開會式에잇서서 永野全權의 演說草案은 이미 作成되여 目下 英譯中인데 一兩日中에 英國外務省에 內示하고 다시 佛譯도 準備할터이다 各國代表도 同樣으로 各其 一兩日中에 相互原文을 提示하리라고 觀測되는데 英國政府의 希望으로 各國代表의 演說은 五分內外에 끈치고 永野全權의 演說도 原則大綱을 述하는데 끈치리라고 觀測되다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此際普通科 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兩科를 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贈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半減함

本會의機關紙인月刊學通信을每月無代進呈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學科講義

高等科 十八冊 一冊六十錢 一年三個月 卒業(速修)
普通科 十二冊 一冊五十錢 一個年 卒業(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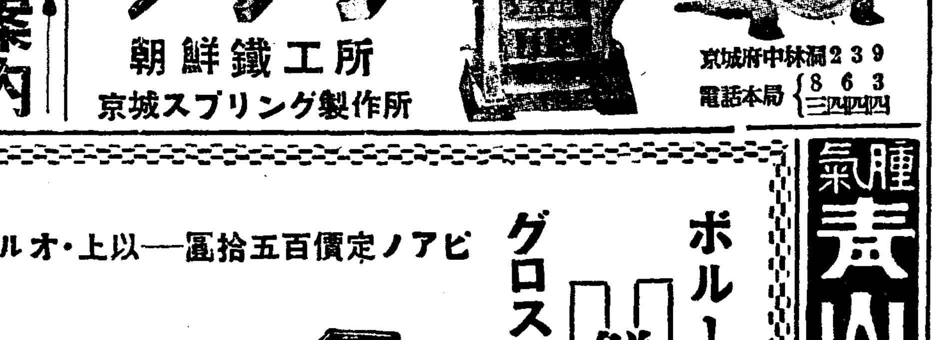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錄이며 朝鮮語、漢文學科가잇는것과 他講義錄에比하야會費도 거의半額임을注意하라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八四番 振替京城八八九五番

移轉廣告
十二月九日부터 左記로 移轉하오니 以此下諒하심을 謹告하나이다
京城府本町一丁目五拾參番地ノ壹
株式會社 朝鮮貯蓄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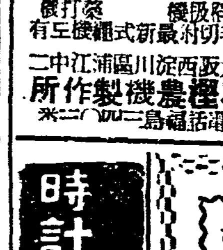
腫氣에 靑山膏 옴에 히벡끄

ボルーゲルピアノ グロスタインピアノ 鮮滿總販賣元
ピアノ定價百五拾圓以上·オルガン二十八圓以上
年末大賣出一割引 地方特約店募集
ピアノ オルガン (在庫品中古品豐富)
オルガン ピアノ도修繕 特別히技術과 誠意로酬應하겟사오니下命하시오
京城本町三丁目 三共ピアノ商會 電話本(2)三六二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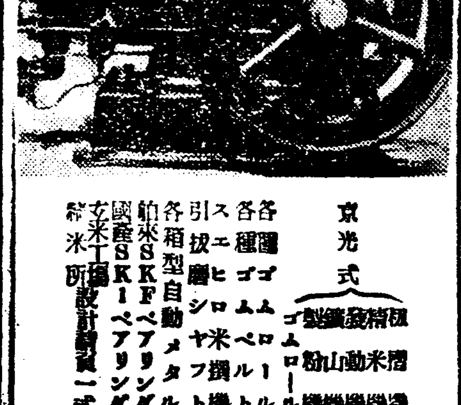


朝鮮鐵工所 京城スプリング製作所 京城府中林洞二三九 電話本局八六三

朝報案內
讓店바- 讓渡하겟사오니 詳細한것은鍾路一丁目五六金剛바-로서問議하시옵 鍾路一丁目五六
新車同樣 中古車三三年式テラツクース 新フオード流線型セダン(使用哩數一萬哩) 車放賣 京城府武橋町三一番地 東洋自動車學校 電本(2)五四〇二
昌信旅館 京城貫鐵洞
社員急募 ▲忠南、忠北、京畿駐在員▲二十五歲以上、敎養有하고 閑家▲希望者至急履歷書送附 京城府黃金町三丁目 昭和生命中鮮出張所長 福島幸正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塚農機製作所



京光式 精米機 發動機
各種ゴムロール 各種ゴムベルト スエヒロ米撰機 引拔シヤフト 各種型自動メタル 舶來SKFベアリング 國產SKIベアリング 玄米工場設計請負一式
京城府岡崎町七一 (岡崎町電車停留所前)
李光淑鐵工所 京光社營業所 主 李光實
電話長(龍山)九六二番 振替京城一三八一五番 電略(ケ)又ハ(ケイ)

時計完全修理 京城鍾路二丁目 普信堂時計舖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〇三
喜劇 섯달금음날 全一幕
◇出發 全一幕
慘絕悲絕의大悲劇
◇暴風前夜 全三幕
全二幕一個月間京城에滯在하며巨大한費用으로비저논雄壯의大活劇作品
三重連鎖劇 支那大猛鬪活劇
十二月八日부터 演劇第二週特別公演 姜蹈峰編劇
海の兄弟 桑野通子 三宅邦子 南部耕作 主演
松竹키네마社蒲田漁村篇을왓운드 監督佐佐木啓祐蒲田夏期의超特作
애기의설음 파라마운트超特作品全發聲日本版 監督 아렉산다—호—ㄹ
十二月九日낫부터晝間二回映畫夜間演劇號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晝映七時부터開幕 晝間映畫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團成社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九九九
大朝世界ニュース 五 大每國際ニュース 篇
ペーテルの歡び 明朗한感覺과快適한魅力을가진新時代의女性의快活과情熱을가진로만티즘이酋殼을깨치고奔流한다
◆ウインユニヴアーサル超特作 ヘルマンコステリツツ監督 フランツイスカ、ガール主演 ハンス、ヤーレイ助演
半島가낫흔映畫作家 鄭雲波氏는現中國映畫界名匠으로서八年後故國訪問唯一한프레센트
再會吧、上海 (さらば上海)
◆上海聯華影片公司超特作 脚色監督…鄭雲波 中國의名星 阮玲玉女士主演
十二月五日封切 每日三回 午前一〇、五〇分 午後一、四五分 六、三〇分

東洋劇場 竹添町一丁 電光3三一番
豫告 十二月十一日부터 紅髮(니진)九、狂亂의몬레카로八 十二月十五日부터 靑春座誕生公演

未完成交響樂 八卷
監督 월니포스트 主演 한스야—레 마르다에가르트
樂聖슈—벨트의悲戀秘事史를그린音樂映畫의金字塔으로가장훌륭스러운純情的스토리에雄大無比한音樂的效果를全以上完全히나타내인데에未完成交響樂以前에未完成交響樂이업고未完成交響樂以後에未完成交響樂이업스리라 반달에뜨락크社超特作日本版
商船테나시티—八卷
監督 쥬리앙듀뷔비에 主演 아르베르프레쟌
百論보다一證!一九三四、五年度映畫賞受領의榮冠을戴한商船테나시티—의內容說明의愚를避하야우리는그저오시라보시라結論으로勸할뿐이다

十二月七日부터 名畫鑑賞週間 晝夜二回午後一時·七時始映 料金 階上 大五〇 小三〇 階下 大三〇 小二〇 씨네아리앙스超特作日本版
淚の疲り鳥 吉村操氏監督 琴路綠會心의熱演
世界的猛獸使 메루부인군스 오르가세스대 규비자포일 大熱演
「마루가혁우냐」나에게는 大都映畫超作現代名篇 交響의猛獸爭鬪映畫
人間의猛獸爭鬪!「단」히의破鏡로이러나는大洪水!그러나이荒한曠世界에도나스카에新生을暴風하며나스나숲魂勇감흐며勝利한 上野動物園古賀忠道氏監修 베라린바 松井翠聲氏日本語解說
野生花 그레아도레보氏 조포—로스타 主演
짜르—지마—살氏大作
十二月七日부터特別封切! 뚝스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優美館 貫鐵洞 電光三九五

開會後解散當해도 期於코老會召集

尹、馬兩氏는上京、委員과密議

風雨難測의參拜問題

【平壤支局電話】신사참배문제의 최후적 결정을하기위한 평양로회(平壤老會)의 개최를 평양경찰서에서 금지한데대하야 로회측간부의 의견을 드르면

「그금지의 리유가 매우곤난하다 그러나 개최를 하엿다가 금지당하는한이 잇더래도 일단개최는 하겟다」

고한다 그리고 숭실전문학교 교장 윤산온(尹山溫)씨와 마포삼열(馬布三悅)씨는 지난십일 경성으로가서 전번창로회때에 조직된 신사참배문제 연구위원회원들과 만나밀의를 거듭하는중이다

知事만快復되면 不參校處置通告

處分方針은이미內定

【平壤支局電話】신사참배문제로 그 불참배학교에대한 도당국의 처치방침은 대강 서서잇스나 방금 안무(安武)지사가 병중에잇서 출근치못하므로 그가 출근하는대로 이삼일중에는 문제의 각학교에대한 처치의 통고가 발송되리라한다

年賀電報의取扱을宣傳

체신국에서는 오는이십오일 부터 년하전보(年賀電報)접수를개시키로되야 선전용『포스타』오천장을 전조선각지에 내걸게하야 맹렬히 리용을 선전중인데 전보료금은 조선안상호간의것과 조선만주 상호간의 것은삼십전이고 조선과 일본내지대만(臺灣)화태(樺太)상호간의 것과 금년부터 새로취급을 개시한남양군도(南洋群島)와 조선상호간의것은 사십전이며 무선전신으로항행중의 함선(艦船)에 발착하는것은 일반무선전보 한통의 최저료금 팔십전이라고 한다

牛車襲擊한 强盜團被逮

漣川署員이

긔보=지난일오후 일곱시 경긔도 장단군 대강면 포춘리(長湍郡大江面浦春里) 압길에서 그동리마차ㅅ군 리로마(李老馬)가 베를싯고 고랑포(高浪浦)까지갓다도라오든 도중사인조 강도에게 습격을당하야 돈십원을 빼앗긴사건이 발생하야 그간소관장단 경찰서에서는 린근 각경찰서와 련락하야 범인을엄탐중이든바 륙일오후 전긔 강도중 김재성(金在成)(二七) 서윤봉(徐允奉)(二一) 서인학(徐仁學)등 세명은 련천군백학면갈현리(漣川郡白鶴面葛峴里)사농에서 마츰 경계중인 련천서원에게 체포되엿다는보고가 칠일아츰 경긔도경찰부에 도착되엿다 전긔서인학은 련천군백학면 백령리(白嶺里)사람으로 그이웃동리 갈현리의 전긔김재성、서윤봉、박갑룡(朴甲龍)(二〇)박용룡(朴龍龍)(二一)의 네명과 공모하야 계획적으로한바와가티 마차ㅅ군을엿고가는 리로마를 함부로 때리며 인사불성이 되게하고 돈십원을빼서 다른네명은 다라나게한후 그는 지나가든 통행인이체하고 경찰서에 사실전말을 보고한것으로 그의말에 수상한점이잇서 장단서원이 조사하려든차에 그는 일이 탄로된것을 겁내어 그의일당과함께 산속으로 피신하엿다가 수배를밧고 경계중이든 련천서원에게 붓잡힌것이라는데 아직 잡히지안흔 박갑룡 방용을 두명도 곳체포되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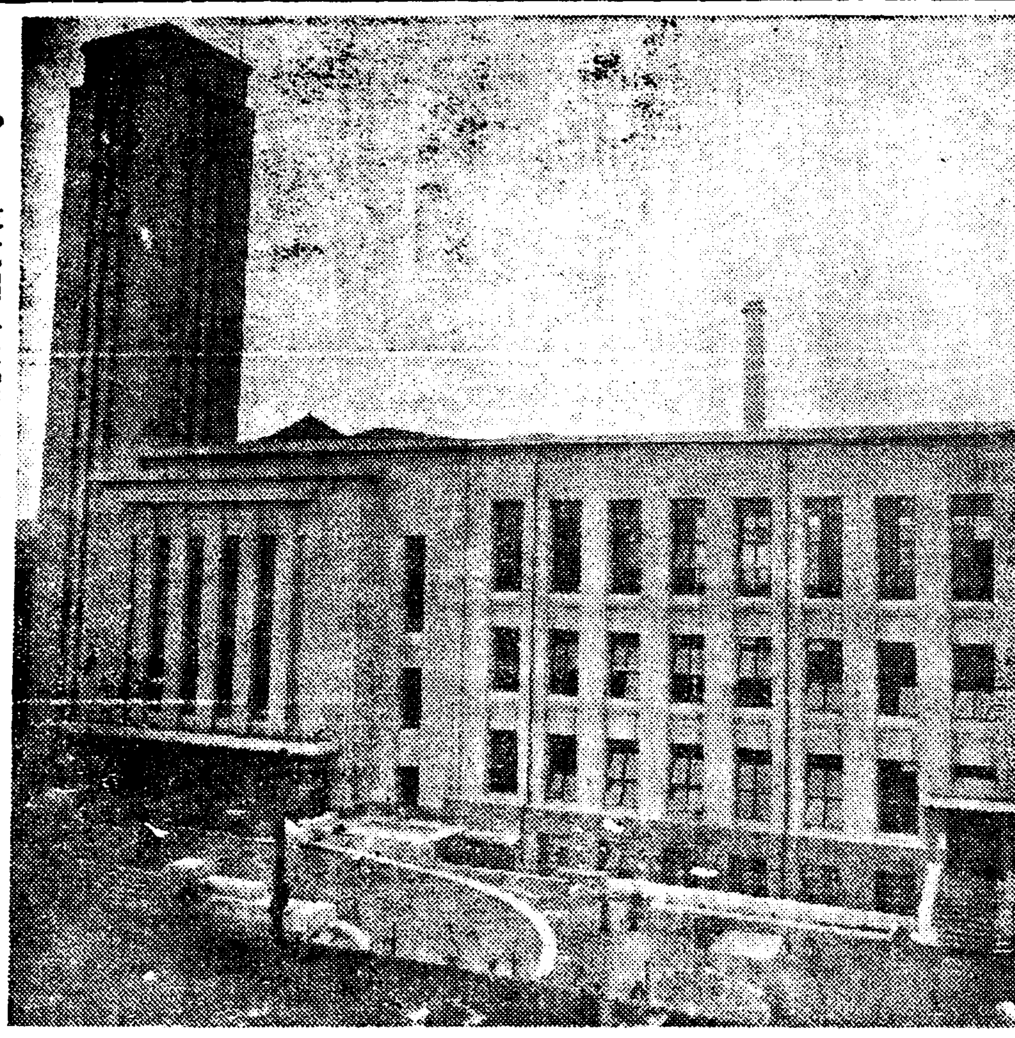
今日竣工된府民館 十日부터披露演奏

告成된府民의殿堂

오십만원의 거액을던저 태평통(太平通)에 건축중이든 부민관(府民館)은 칠일로서 준공이되엿다

부민관의 자랑인 대『홀』은삼천명의 관중을 수용하는것으로서 무대에만 이만『킬로왓트』의조명을 설비햇고 그밧게도『풋라이트』『보-더-라이트』『써스펜숀』『스폿트라이트』등 각조명장치와 조광기(調光機)도 설치햇다고한다

개관식은 십일오전열시반에성대히 거행하리라고하며 그날부터 사흘동안 매일오후여섯시부터 개관피로로 기생과예기의 무용을 상연시킬터이라는데 입장료는 오십전、삼십오전 이십전을바드리라한다 그러고 십일일과 십이일이틀동안은 오전열시부터 오후세시까지 일반에게 공개해서 내부를 구경시킨다고한다



◇……落成된 京城府民館全景……

兼二浦毒感流行

【兼二浦】황해도겸이포(兼二浦)지방에는 약십여일전부터 독감이 창궐하야 현재신음하고잇는 환자수만도 수백명에 달한다는데 그중특히 어린아이들이 만이 신음코잇는현상으로 거이 집집마다 환자를 내이고잇다한다

寫眞은 伯林서 練習中의 자바라選手×

世界마라손王『자바라』

마라손朝鮮을아느냐

米國『로스앤젤스·올림픽』의 마라손競走에서 優勝하야 銅像까지 세우게된 亞爾然丁의『자바라』選手가 伯林大會에서 再次 新記錄을 樹立코저 野心滿滿하야 지난 九月末에 獨逸伯林에가서 猛練習을 開始하고잇다함은 旣報한바와갓거니와 明年올림픽마라손에는 갈데업시 優勝은 우리의것이라고 自信가득한 孫基禎、南昇龍君等의 마라손選手에게는 意外의 滋味롭지못한『뉴-스』다

『자바라』選手는 亞爾然丁에서 大統領의 私設秘書의 重職을 보고잇는데 이번에 擇國之特로『자바라』를『또다시 이기게하여라!』라는 聲援을 드른 大統領은 올림픽大會까지의 一個年間의 休暇를준外에도 不少한 補助金까지 주어서伯林으로 先發케한것이다 獨逸語에 不通한 그는 運조케伯林에 의『가이싸-후리-드릿히』小兒科病院助手로서 研究의길을밟게된 亞爾然丁出生의 醫學博士『알펠드·씨다스』와 同伴케되여 伯林到着後에는 모든것을博士에게 依賴하면서 生活하고잇다

『로스앤젤스』에서優勝할 그때에는 二十一歲의 가장절믄『마라손윈나-』이엇섯스나 歲月은흘러서 今年十月十一日 伯林에서 二十四歲의 生日을마지하엿다『로스앤젤스』大會以後로는 그의競技生活은 거이 消息이 끈허저잇섯승으로 그의實力을推測할수업스나 伯林到着以後의『자바라』選手는 每日午前七時起床、午後九時에 就寢하는 規則的生活을하고잇스며 午前中에는 體育館에서 體操를하고 午後에는 올림픽『마라손·코-스』를 默默히 八哩乃至十哩可量式달리고잇다

자바라選手는 말하기를『伯林의 코-스는『로스안젤스』보다 나에게는 더욱조흔코-스임으로 好記錄을 내일것입니다』그러나 그는 世界의 情報를아는지 모르는지 今春以來 孫基禎君이 몃번이나 그의 記錄 二時間三十一分三十六秒를 突破하엿건만『自己記錄은 只今까지 四年間은 不可侵이라』고 豪言을하며『伯林 에서는 自己의 强敵은 芬蘭選手뿐이라』하며 强敵의 情勢偵察을 위하야 芬蘭으로 떠나갓다

朝鮮人側所有는 全體의三割未及

鐵工業을通해본京城

공업경성의 중주를 이루는 철공업의 현상에 대한 조사는 기보와가티 경성부 산업조사제사부(商工部)에서 이미 마치여 오는 일에 제상부회를 열고 그최종적 종합으로 끗마첫는데 그것을 통하야 최근 이삼년동안의 공업경성의 성장의 자최를 살펴보면 소화칠년에는 공장수가 칠십륙개소이든것이 팔년과 구년에는 팔십륙으로 부럿고 직공수로는 소화구년에 삼천팔백륙명으로 그전해보다는 이십륙『퍼-센트』즉 륙백오십명이 부럿고 그전해보다는 칠십『퍼-센트』즉 일천삼백명이 부럿다 생산액으로 보면 소화구년에사백팔십칠만이천원이엿는데 팔년보다는 이십삼『퍼-센트』칠년보다는 일백오십『퍼-센트』가 각각증가되엿다 그중에서도 제일왕성한것은 철도용긔게구공업인데 년산액 이백오십만원으로서 전산액의 오십일『퍼-센트』륙이다 다시 일본내지인과 조선인을 비교하면 공장수에잇서서 일본내지인 소유는 오십팔개소인데 조선인은 이십사개소로서 전수의 이십팔『퍼-센트』바께 아니되고 자본금에잇서서는 일본내지인은 총액삼백사십만오천이원이어서 평균한공장에 오만팔천칠백원인데 조선인측은 자본총액이 겨우 그삼『퍼-센트』에 해당하는 십삼만일천원으로서 평균한공장에 오천사백륙십원내외다

또 종업원수로보면 일본내지인이 이백팔십사명 그중에서직공이 이백명이요 조선인은 이천칠백륙십칠명인데 그중에서직공은이천륙백구십명이다 임금으로보면 일본내지인은 삼원오십전부터 일원까지요 조선인은삼원으로부터 칠십전까지다

그리고공장분포상태로보면 룡산(龍山)방면의 오십삼개소가최고여서 전공장수의륙십이『퍼-센트』를 차지하고잇는데 공장은벌서부터도 청량리(淸凉里)왕십리(往十里) 영등포(永登浦)방면으로 팽창할 형세를 현저하게 보이고 잇다

同和 止咳露 京城府和泉町五 株式會社 同和藥房

校長이食費橫領 八十名缺食彷徨

허울조흔『朝鮮第一自動車校』

本町署서取調中

십일 오전열시 시내본정서고등계에서는 시내 태평통(太平通)이정목에 잇는 조선제일자동차학교(朝鮮第一自動車學校) 교장 송제구(宋濟九)(二七)(假名)와 동교생도 로은순(盧殷淳) 문신정(文信正) 황재홍(黃載洪) 황갑선(黃甲仙) 리팔옥(李八玉)등 여섯명을 불러 엄중히 취조하는중인데 동교장이 학교경영을 인수하야 지금까지 한푼도 투자하지안코 생도들에게서 바든수업료(授業料)를 소비하고 당초의 계약일체를 물고하고 학교문을닷고 어데로인지 행방을감추고 다라나버려든것을 생도측에서수색원(搜索願)을 제출하야 붓드러 온것이라는데 사건내용을듯건대 다음과가타

전긔 송교장은 지난 시월이십오일에 김동일(金東一) 홍란유(洪蘭裕)두사람의 소개로 동교경영권을 전교장 김대홍(金大洪)씨로부터 인수하야경영하여오든중 생도팔십명에게서 매명에삼백원식의 수업료 식비(食費)등을밧고도 계약을 이행하지안코 한번도 식비를주지안허 생도들은 벌서사오일전부터 식주인에게서 밥을주지안허 끄니를굶고잇고 게다가 실습용자동차주대마저 전당포에 너서업새버렷슴으로 실습조차 할수업시되야 때마츰 지난오일부터 운전수시험이 시작되엿스나 시험도보지못하고 잇는데 교장은식비와 교수료를독촉밧고잇다가 종적을 감추고마럿슴으로 생도측에서는 지난륙일 종로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야 행방을찻다가 칠일오전 여덟시에 서소문정(西小門町)모주옥인 집에 잠복해잇는것을 발견하야 힐난하는것을 본정서원이 발견하고 다려다가 취조하는중이라는데 문을 다친 동교를 차즈러 생도들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憤莫憤焉』

某生徒談

『분해 못견듸것습니다 교장되는 송씨는 룡인(龍仁)사는 송배작의 손자로명망이 놉흔사람이기로 이학교를 마틀때에 크게긔대한것인데 오늘에는 우리에게 수업을 시켜주지안코 게다가밥까지 굶겨주고는 고만 다라나버린것을 차젓습니다 당국에서 우리의 억울한것을 잘리해하야 적당히 조처해줄것으로 압니다만 우리는 최초의 계약에 삼백원을내이면 운전수 면허(免許)엇는 날까지 학비와 식비를 대주기로 한것임으로 그를 이행하여준지 그러치 못할테면 계약에의하야 매인에 삼백원식을 전부반환시켜달나는 것입니다』운운

江界燒死事件은 全部他殺이的確

原因은아즉도不明

【警務局着電】평북강계(江界)공립학교장 하야룡삼(河野龍三)씨의관사에서 륙일오전 여섯시에 불이나서 일족륙명이 참사한사건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화재의원인에대하야 의문이잇서 검사가 현장을 검증하는동시에소사자칠명의 사체해부를 한결과 하룡씨부인 하나(ハナ)와하룡씨의 누의송지(松枝)(二九)는 머리와목에 상당히 날카로운 흉긔로자상(刺傷)한흔적이잇스며 또횡지(橫地)기수도 얼골에 독기(斧)로 때려 부상한 흔적이 잇서 타살이 확실한데 범인은 전긔 칠명을 살해한후 죄증(罪證)을 인멸(湮滅)시히기위하야 방화한것으로 보이어 방금강계경찰서에서는 검사의 지휘로 범인을 엄탐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것은 교장의 누의 송지(松枝)가 집방동쪽돌에서 소사한것으로 보이여 강도의 범죄인지 혹은 무슨원한이잇서 한일인지 또는 치정관계인지 모도 의문에 쌔여잇서관계자가 전부 소사하니만치도 모지사건의단서를어들수업다한다

全日本綜合籠球 一月四日부터擧行

日本籠球協會主催의 第十五回男子及 第六回女子 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는 明年一月四日부터 九日까지(六日間) 明治神宮外苑『코-트』에서 擧行할터인데 大會에出場할 代表팀은 各府縣 男女一團으로 되여잇스며 參加員이 十五名以上이 될때에는 二團을 出場식킬수잇다한다

서울스키-俱 十三日에創立總會

윈터-스포-츠의 精華! 스키-界의 發展과 아울러 親睦을圖謀하기위하야 스키-團體를 組織코저 懸案中이든바 지난六日午後七時부터 朝鮮體育會館에서 斯界에 뜻잇는이들이 會合하야 名稱은『서울스키-俱樂部』라고 부르는 年來의 宿望이든 스키-團體를 組織하고 그創立總會를 來十三日 午後七時부터 朝鮮體育館에서 열기로 되엿다는바 發起人의氏名은 다음과갓다

林學善(培材) 李容玩(東亞) 黃澳(臺正) 朴榮鎭(體育會) 韓相沫(YMCA) 朴來賢(朝鮮山岳) 金有亮(龍鐵) 金龍九(體育會)

올림픽氷上選手 歐洲各國서招聘

【東京電話電通】第四回冬季올림픽大會에 日本으로부터 五十名의 代表가 遠征參加한다는 報를接한 歐洲各國에서는 注目을이끌어 올림픽大會를前後하야 日本選手를 招聘하겟다는 申込이만허서 氷上競技聯盟에서는 그『스케듈』作成에 奔忙中이라한다

全日本學校對抗卓球

日本卓球協會主催의 第五回全日本學校對抗卓球大會는 來一月四日(土)及 五日(日) 午前九時부터 東京市 麻布普通小學校에서 (市電飯倉片町下車)行할터인바 第一部(男子大學、專門) 第二部(男子中等學校) 第三部(女子專門及中等)에 나노아 優勝權을 決할터이며 參加希望校는 一校三名式 選出하야 十二月十五日까지 東京市芝區田村町 榮和빌內 同協會事務所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運動界人事

▲李萬鎭氏(講道館 四段·東京撫武館柔道敎師) 入京人事次 七日 本社來訪

◇鍾路管內淸潔

부내종로경찰서에서는 어름얼기전에 그관내에 림시청결을 실시하기로되엿는데 날ㅅ자는 다음과갓다 그리고 비가오는때는 끗날이십이일뒤로 연긔실시한다고한다

▲十二月九日 宮井洞 新橋洞 孝子洞 淸雲洞 光化門通一 玉仁洞 通洞 樓下洞 樓上洞 體府洞 昌成洞 通義洞 積善洞 內資洞 社稷洞 弼雲洞 需昌洞一部

▲同十日 唐珠洞 西大門町一丁目一部 西大門町二 需昌洞一部 都染洞 瑞麟洞 九三―一六九 淸進洞一一八―終 西大門町一 一一九 一二〇―一八九 光化門通一部 鍾路一丁目一部 中學洞 壽松洞 諫洞 光化門通一部 公平洞 淸進洞一部 鍾路一丁目一部

▲十一日 八判洞 三淸洞 花洞 昭格洞 寬勳洞 松峴洞 堅志洞 安國洞 桂洞 嘉會洞 齋洞 慶雲洞 勸農洞 雲泥洞 益善洞 臥龍洞 苑洞

▲十二日 瑞麟洞一部 南大門通 仁寺洞 鍾路二丁目一部 樂園洞 敦義洞 鍾路二丁目一部 鍾路三丁目一部 貫鐵洞 觀水洞 長沙洞 授恩洞 鳳翼洞 薰井洞 鍾路三丁目一部

天氣豫報

高氣壓은 滿洲北部에 七七二粍 本州中部에 七六八粍의것이 잇고 揚子江中部에는 七五八粍의 低氣壓이잇서서 徐徐히 東進中이다 滿洲는 흐리고營口、奉天은 降雪、新義州附近은降雨 國境中部에는 降雪이잇다 東岸의北部는 흐리고그外는 日氣가조타 京城地方은 京畿道全般가 今夜에도 明日에도 개엿다흐렷다가하면서도 따뜻하겟다

昨日最高 一一、八
昨日最高 二、一
今日正午 九、八

高血壓·腦病 神経痛·喘息 中風

病根이되는濁한 血液을淨化하면完治

今津佛理博士發見·淨化劑의好成績

견비통이나고、頭重、耳鳴、眩氣、動悸、喘息、便秘、不眠症、神經衰弱、浮症、高血壓、痙攣、動脈硬化、허굿고、半身不隨 等은循環障碍의靜脈循環疾과內臟障碍로 血液이탁하여서 循環이납브게로 일어남으로 血液을淨化하지안흐면안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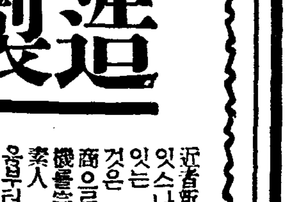
파리잡는약으로有名한今津佛理學博士는 血液淨化의 良藥을 發見하고 그 服用과 病原에適當한 養生法을 갈으키여서 前記의症狀을조케하고 全國各地에서 依賴해오는多數의病者를 깁부게하고잇다

只今까지 藥과療法에여러가지로 迷惑하고잇는분은 빨리信用잇는大阪府泉北郡三國本町 今津研究所에 依賴하여서 빨이全快되도록하시라

恢復의歡喜 이兩三年間血壓二百미리以上으로耳鳴、頭重、根氣가만타。地方에는書面依賴로親切한回答을하고良藥을分讓함、다음과가튼實例缺乏、神經痛、喘息의宿病에苦痛밧다가 注射로血壓을내리게하엿스나조금잇스면 도로元狀대로되엿으로 아조失望하고잇던바 突然腦溢血에걸여서 허가굿고半身不隨가되야苦痛하다가今津先生의 發見한血液淨化劑와 病原治療劑의併用으로 血壓도 漸降하야百五十미리까지降下하고約一個月半後의今日에는허와手足이自由로되야從來대로商業에從事하고잇는바家內一同이歡喜를天기고잇습니다 效力에驚歎하고잇는바이오니 同病者에게알녀줍니다 (後略) 大阪市 吉原爲吉

副業에紙袋製造

近者新聞紙上에 여러가지職業이 宣傳되고잇스나 婦女子라도 손쉽게小資本으로 될수잇는 깨끗한일로서 紙袋製造만큼 適當한것은 아마업슬줄안다。弊所主가 오래製袋商으로서의 經驗으로 苦心考案한結果 新案特許二年을 獲得하엿스나 製造機를完成한 素人이라도 製品에 好劣이 안나고 自然完全하게되는 簡易製袋機는 我國唯一한것이다。現在弊所의專屬으로서 製造者를 急募中이니 市內地方을 不問하고 希望하는 者는 오래營業하고 確實한 當所에 申込하라。當所에서 製品을 引受하야 袋販賣의 責任을 지고 營業케하도록 하고 貴賤을 不問하고 本業으로 副業으로 懇切히希望합니다。



大阪市天王寺區東高津北町四二番地ア ベノ橋北一丁 合名會社 江商製袋工業所 電話天王寺 三六一七番 振替大阪 一三八〇五、八一〇六七

メリヤス 雜貨 三永商会

店名記入商報請求次第無代進呈

京城府三角町百五番地 電話光化門(3)一四六三番 振替京城一五八三〇番 仕入部 大阪市北花區上福島南三丁目四三 電話福島一五八八番

帽子製造卸商 坂井帽子店 京城南大門通三丁目 電本(2)三七六〇 振替京城八六一一

本年度末感謝

歲暮大景品付大賣出 十二月三十日까지

御來店하서서現金으로買上 金貳圓에每景品券一枚式進呈 一等부터十等까지 全部空籤이업다

그外에年末賣出用 各種帽子도豐富히가추어잇싸온즉 곡하번來店하서서 多數를不拘하고 下命하여주시옵소서

男子專用

巧妙發明 物理療法器로 小弱生○器

自手로秘密簡便하게 健全發育과 機能復活의大好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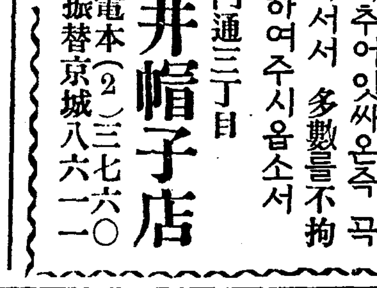
나輕便하야効力은莫大하다 本器는自手로秘密簡便하게 直接生○器에使用하야 物理療法을 行하면 眞空吸引力을 이르켜서 性器에 新鮮한血液이 月前에感覺할만큼 流集되야、發育細胞를 新生하는 給源이되며 組織을 擴張식히고 同時에 發育力을 喚起식히며 發育的現象을 具體的으로 實現한다、同時에 微妙한 에쓰(?)作用에 依하야 生○器神經衰弱을 復活식히며 不自然自瀆、過房의害、遺精、夢精、早漏、陰萎、彎曲等을回復식히며、弱少、機能障害도僅少한費用으로서健全發育을식히는效能이잇스며、따라서男子의資格을完成하면、이것을根源으로하야腦力元氣、記憶力을增進식히며、前途에幸福成功의光明이비치서、人生이明朗하여지며 實驗界에잇서서는回復者의好評과感激의聲이交錯하나患者諸氏는迷惑되지말고迅速히實驗하기를……

弱少의不幸

男子로 태여나서、生○器發育不全機能障害라고하면、要害가집흔格이업슴으로써、感動하는 結婚을回避하며、父母에게도말치못할煩悶이잇다고告白하는青年도잇스나 要害가지더라도、家庭이和合치못하여往往이離婚을하든지、마로金錢을허비하여 여러가지로 治療하더라도 그効果를보지못하고悲觀하는사람을만히보게된다。

只今에는 最新發明療法의恩惠로人生의福祉를開拓하며運命을好轉식힐機會가왓다。

各博覽會名譽金牌受領



眞空吸引力으로 發育의幸福

日獨佛專賣特許 ホリック 眞空水治器 는學理的應用의發明構造가精巧無比한、形은小하

▼注意

青年時代는一日이라도貴하다는바男子一生의資格을完成시키는것은準備中第一의急務이다 要는即決實行에잇다!

日獨佛專賣特許

醫學博士五十餘氏實驗證明推獎

博覽會名譽金牌受領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內地二五錢 植民地五五錢

◇包莖 자르지안코秘密히成形됨 ホリッ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 內地一五錢 植民地四二錢

◇代金引換小包는 各送料十五錢增 =說明書添付= 匿名으로密送

◉僞物 效果不完한수가지의模造品가잇스니꼭 ホリック를眞空水治器를求하십시오 ホリック의商標

◇無料進呈

(非賣品) 圖入說明書

造化의秘密을開放的하로滿載하고、本器의內容도詳細說明、사하生殖器와小男子의 深刻한悲哀의事實、本器實驗者가滿悅함이든特謝眞驗文도多數揭載、꼭一讀하라秘密安心하고葉書로照會하시오、全部無料로匿名密送함

東京芝區神谷町十八 合資會社 東京新療法研究所 電話芝 三二一二二番 振替東京 七七三九番

김

맛조코 몸보하고 어느때나 명쌈복쌈

입맛이 업슬때는 구미도돕는다

겨울 반찬의 진중품

겨울밥상에는 김쌈이 한목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향취가 잇서 맛도 조흐려니와 담백질을 만히 포함하고 잇서 몸에도 보합니다。 단지 소화가 그리 조치 못한만큼 그 것이 한 험이오나 주의하야 만히 자시지 안한다면 그저 그만입니다。 이와 가티 맛도 조코 몸도 보하는 김쌈은 하필 정월 열나흔날ㅅ밤에 먹어서만 복쌈이 되고 명쌈이 될뿐이아니라 어느때나 복과 명을 한께 마저다가 드린다고 밋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조흔 음식이라도 료리방법이 서툴러서는 재미가 업습니다。 물론 그만것을 모르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하야 몃말씀을 올립니다。

김을 쌈으로 먹자면 무엇보다도 몬저 적을 잡어야 합니다。 적을 잡는다고 하니까 혹 모르실 분이 계실지 모르오나 별다른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요 김에 부튼 지프래기라든지 검부적이를 떼어 버리는것이랍니다。 그런데 적을 잡아가지고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쌈을싸서먹을

수가 잇습니다。 첫재는 발개깃으로 기름을 바르고 고운 소금을 뿌리어 구어 먹는것이요 둘째 기름도 소금도 바를것업시 구어서 고초ㅅ가루간장에 찍어 먹는것이요 셋재는 구을것도 업시 고초ㅅ가루간장에 날로 찍어 먹는것입니다。 물론 어떠케 먹는 방법이든지 네모가 반듯반듯하게 비어서 접시에담고 산적꼬치로 꼬자 놋는것이 볼품잇습니다。

만일 조선ㅅ김 가트면 네쪽에 내는것이 꼭 알마즘니다。

×

그러나 김이 쌈이유명한것은

사실이지마는

밥쌈이 쌈으로만 먹어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쌈이외에 여러가지로 반찬을 맨들수수 잇습니다。

김자반 김에 깨소금 간장을 알마치 발러서 장장이 포개 노흡니다。 김ㅅ장이 서로 달려 부튼뒤 손가락 두개 널비와 한마듸 길이로 비어서 먹습니다。

김무침 김을 부비어서 엽마만큼 부서버립니다。 거기다가 깨소금 기름 혹은

고추가루등을

치고 무처 먹습니다。 또 그이외에도 청포묵을 무칠때 김을 뜨더 너흐면 맛이 한결 더 나고 게살(蟹肉)을 배서 무칠때도 김을 뜨더 너흐면 맛이 한결 더 납니다。 흔히 떡국에도 김을 뜨더 너습니다만은 그는 마치 모르겟습니다。

×

그런데 김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잇습니다。 일본내지에서 나는 샛가만 시해태(紫海苔)도 김의 한종류요 조선서도나지만 새파란 청해태(靑海苔)도 김의 한종류입니다。

그러나우리가

보통 김이라고 하는것은 소위 감색빗의 암해태(岩海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류보담도 제일 맛잇습니다。 그런것도 알고서 사서야 합니다。 공연히 잘못 사가지고 김락밥을 하서서는 안 됩니다。 그려고 김을 오래두고 자시려는 분은 생철상자에 복근보리를 담고그우에 업은뒤

상자를꽉다더

두는 것이 조습니다。 그보리만 갓끔갓끔 꺼내서 다시 복가가지고 식히어 집어 너흐면 녀름철도 잘 지내게 될수 잇습니다

무쇠王子 ②

崔秉和

무쇠왕자는 어것을보고 언제인가 닭의장사할머니일을 얼른생각해내고

『참말 그때는 내가납분작난을해서 닭이 모다깨여젓스므로 그갑스로 형님과누님을 잡어갓는지도 몰는겟다。 이번에는저할머니에게 착한일을 해보자』하고 속시 할머니것에갓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무겁지요。제가 한쪽끗을 드려드릴터이니 집머지실 소하고 나무단을드려서 뒤에 해버리지안코 집머지게 하엿습니다。할머니는 조와하면서

『도련님! 고맙소。그은혜로내가 조흔물건을 드리리다』하고 땅을 두들겻습니다。그러니간땅속에서 큰 무쇠궤작이 무쇠왕자압에 나타낫습니다。무쇠왕자는

『할머니 이것은 무엇하는것입니가。』하고 놀라서 무르닛간 할머니는 우스면서

『나는 당신이가는곳을 당신보다도 더잘알고잇소。어듸든지조흔디 여기다서요。그러면 순식간에 맛두님잇는곳으로 갈것이요』하고 말을맛치자 마자도할머니의그림자는 연기와가티 사라저바리엿습니다。

무쇠왕자는 퍽 조와하면서 그무쇠궤작에 올라탓습니다。그러닛간 무쇠궤작은바람보다도 더빠르게날러서 순식간에 큰 은빗성(銀色城)압에 왓습니다。

『이성안에 맛두님이 잇고나생각하고 무쇠왕자가 드러갈랴고 하닛간 공교롭게 다리가 잇고 그다리우에는 날카로운 칼들이 비틀이업시 꼿처잇서서 엇더케 할수가 업겟습니다。그러닛간 궤작은 사람처럼 입을여려서

『이리로 가면 어렵지안타』하고 다리아래 물위로 풍덩뛰여 드러가드니 배처럼 떳습니다。무쇠왕자는 그위에 올나안저서 어렵지안케 성안으로 드러갓습니다。

드러가닛간 누님은 해옷을입은채 엿다가 무쇠왕자를 보고 『아!네가 웬일이냐!』하고놀낫습니다。

『누님! 저는 누님을 모시려 왓습니다。』하고 무쇠왕자는 깃분붓이 말하엿습니다。

『나를 데릴러왓다는것은 고맙지만 지금 나는 대가리여섯가진 룡(龍)에게 붓잡혀잇스니간 너도 잘못하다가는 죽기쉽다』

『염려할것업서요。대가리가 여섯아니라 여덜가진 룡이라도 내가 죽여놀터입니다。 대관절 그룡은 어듸 잇소』

『지금 맛춤 바게나가고업다』

『업스면 더욱조치안소。이성안에는 어느곳에 보물곡간이 잇슬터이니 누님 아르켜주』그래서 남매는 구석에잇는 곡간의로 갓습니다。

드러가보니간 제일 놉흔곳에 조고마한 항아리가 귀중하게언처잇스므로 꺼내서 보니간『룡의힘』이라고 쓰여잇습니다。

『무어、룡의힘야、옹그러면 이것을먹으면 룡과갓흔 힘이생긴단 말이지』하고 무쇠왕자는 그항아리에잇는물을 훌덕 다마시여 버리엿습니다。

그때 집어울리는듯한 큰소리를내고 이성의주인인 대가리여섯달린 룡이 어듸서 도라왓습니다。 그리고 나섯투쿤 사람이 잇는것을보고

『너는 목숨이 악갑지안호냐。무슨볼일이잇서서 이곳에 왓느냐』하고 눈을크게뜨면서 호령하엿습니다 그러나 무쇠왕자는 태연한얼골로

『당신과 씨름을 하려왓소』하고말하엿습니다。

『흥!요놈바라 씨름을하라왓 건방진 소리를하는구나。조흔다 그러면은 어듸 너의힘을 시험하야보자』하드니 돌(石)떡을 가지고와서 나무칼로 극드니

『자! 이흉내를 내바라!』하고말하엿습니다。

『그까짓것 어렵지안타』하고 무쇠왕자는 껍!껍!우스면서 돌떡을 손구락으로 두둥강에 잘넛습니다。 그것을보은 조꼼놀나는듯하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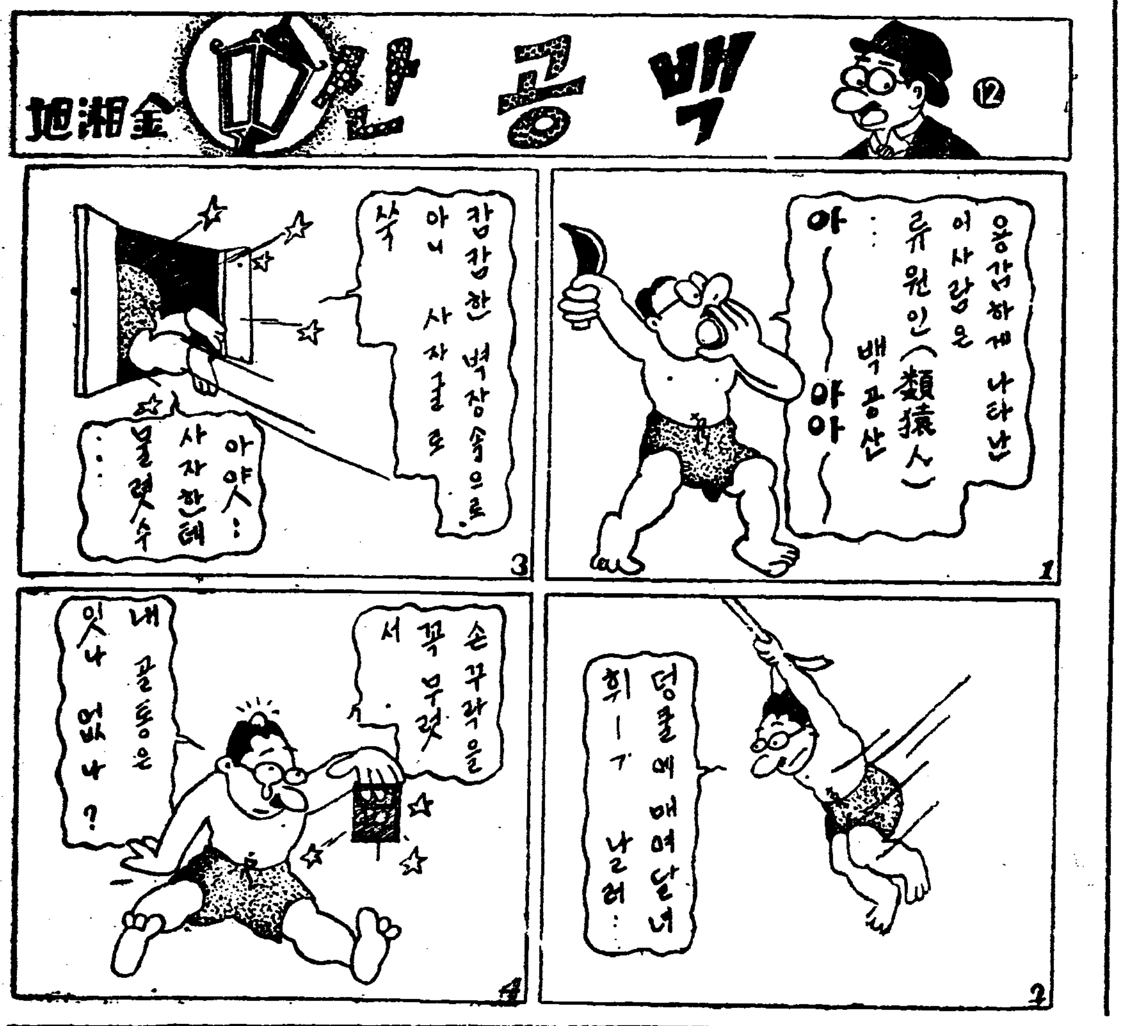
『옹! 자미잇는놈이다。그러면 어듸 씨름을해보자!』하고 무쇠왕자를 씰듯허로 떼불고갓습니다。

성황이룬야담대회

야담동호회(野談同好會)주최 본사학예부후원인 야담대회는 예정과가티 작륙일밤 서대문압동양극장에서 열렷는데 근래에드믄 대성황을 이루엇다

백공산 ⑫

金湘旭



소화잘되고 영양분잇는

맹물생선

요지음 각가정에서 반찬꺼리 생선으로는 대개 바다에서 나는생선을 만히씁니다 해물생선도 조흔것이지만은 강에서나는 생선으로 늘반찬을만드러 잡수시면 매우좃습니다 그중에도 잉어는 영양가치가 풍부한것으로 강고기로서는 붕어와 동대로 대표적생선입니다 잉어는 담백질이 一六、二〇떠-센트가 포함되엿고 지방이 一、一五떠-센트 석탄분이 一、二五떠-센트가 포함되엿습니다 취가창(粘膜)가름데는『비-타민』이 다량으로 포함되엿는데 껍데기와 살에도 다량으로 포함되여 잇습니다 그리고 잉어는 소화가 잘됩니다 잉어회 엽천『그라놈』은 두시간십오분간에 소화되여버린다고하니 붕어와 가튼정도로 소화가 잘된다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망어회나 생겨란 또는 익히거락이나 닭고기가튼것에 비교해보면 잉어편이 소화가 더잘됩니다 잉어반찬을할때 뼈와 비늘을 그대로넣고 장시간을 익히면 뼈까지먹도록 아주연하게됩니다 발육기에 잇는 애기들에게는 제일조흔 부식물인바 골격과 이(齒)의 발육에는 더욱조흔것입니다 고기맛도 해어보다 못하지안코 해어처럼 비린내도 괴히나지안허서 생선을 실허하는 애기들도 먹을수잇습니다

七日 (土曜)

◇午後六時 童謠齊唱 一、아침일곱시 二、가을 三、돌감나무 四、그리운고향 五、전차 六、기럭이 七、감빠이별 八、대장깐 九、잠자는물네방아 金蘭會 伴奏 兪富全 指揮 玄雲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高永煥

◇同七時三〇分 趣味講座 科學의目標 沈亨弼

◇同八時 女聲合唱 一、主를讚揚하라…스마르作曲 二、薔薇꼿이필때……해어作曲 三、印度人의새벽…자메닉作曲 四、오랑캐꼿……렌즈作曲 五、해빗……올리作曲 梨專글리-클럽 指揮 尹聖德

◇同八時三〇分 俗曲 피아노伴奏 金明子 一、길군악 二、打鈴 三、山念佛 四、江原道아리랑 五、방아타령 六、노래가락 七、唱夫打鈴 洋琴 崔壽成 奚琴 池龍九 細笛 高載德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老人歌 二、唱劇調 三、願草歌 方應敎

八日 (日曜)

◇午後〇時五〇分 새타령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吳翡翠 金蓮守 鼓手 韓成俊

◇同一時二〇分 和調 入相鈴 李環協

◇同六時 名作 少年映畵이야기

◇同六時二〇分 兒童日曜新聞 어린이世界 成東鎬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講話 釋尊成道의意義 李康吉

◇同七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어느運轉手의이야기 金精玉(運轉手)……河一環 順子(그의안해)……李英惠 順伊(順子의兄)……李貞純 用信(助手)……楊薰 朴主事(商人)……車日光 其他 放送劇協會 演出 李貫 效果 效果班

◇同八時二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사설지름 三、지름 高永來 奚琴 池龍九

◇同八時四〇分 (東) 管絃樂 新交響樂團 指揮 니콜라이·시메르브라운트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 流行歌 一、沙漠의情歌 二、자장가 三、南洋의아가씨 四、浮世草 五、夜月空山 伴奏 DK管絃團 余玉

九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大) 吹奏樂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一、序曲『로자문데』…슈-버-트作曲 二、圓舞曲『눈(雪)』…메로라作曲 三、交響詩『芬蘭頌歌』…시베류스作曲 四、歌劇『파우스트』拔萃…구노-作曲 大阪市 靑樂隊 指揮·林亘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冬節과化粧 鄭花那

◇同六時 童話 金福鎭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朝鮮 中央日報經濟部長 李相琛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 夏目漱石의藝術態度에對하야 普專講師 咸逸敦

◇同八時 寒邊歌外 一、寒邊歌 二、孔明歌 三、山念佛 四、京西巨里 五、노래가락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三〇分 古談 因果報復 吳祥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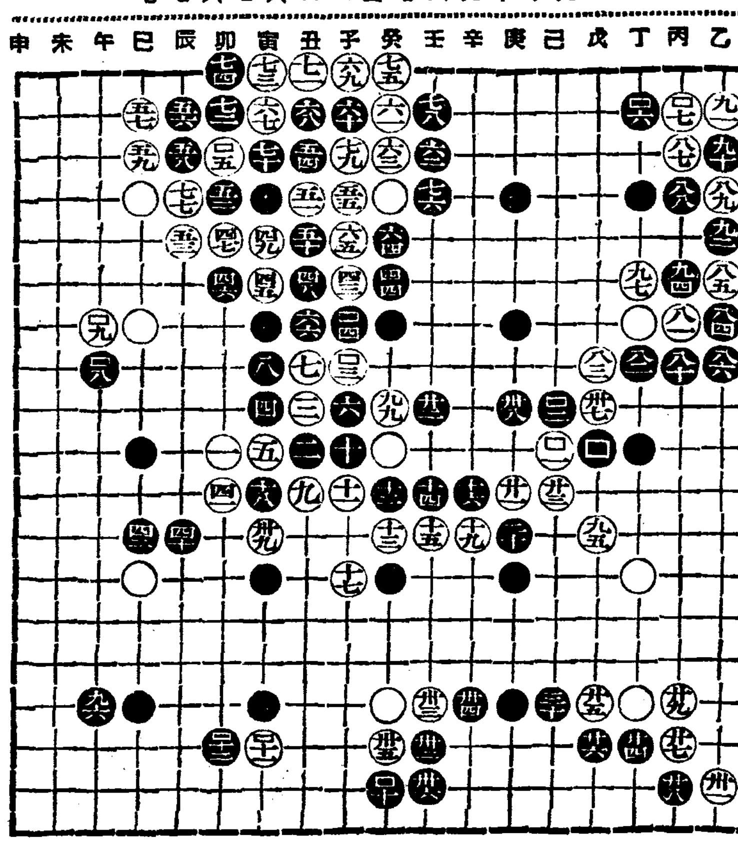
◇同九時 빠이올린獨奏 一、스프링 소나타中에서 第一樂章 베-토-벤作曲 二、모-멘트 뮤-지칼…슈-버-트作曲 四、夢想曲…슈-망作曲 五、마주루카…위니아우스키作曲 安聖敎 피아노伴奏 JB스루테니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白 丁奎春 / 黑六點置 李英鎬

○九七 丁의六 / ●九八 甲의六 / ○九九 癸의九 / ●一〇〇 戊의十 / ○一〇一 己의十 / ●一〇二 己의九 / ○一〇三 子의八 / ●一〇四 子의七 / ○一〇五 卯의三 / ●一〇六 丁의二 / ○一〇七 丙의二 / ●一〇八 午의八 / ○一〇九 午의七 / ●一一〇 癸의十八 / ○一一一 寅의十七 / ●一一二 卯의十七



◆蔡極文氏評

白이 癸의 九로 黑三點聯絡을 不應하고 黑이 戊에 十으로 白五點을 取함이 利害較計에 明斷으로 看破된다 每每如是면 其誰能下手로 待之리요 黑이 丁의 二로 白을 脅威한후 丁의 三으로 防禦하면 白이 甲의 四劫을 十分注意할러이요 黑이 癸의 十八보다 寅의 十七로 延着하야 耳角保守에 偏함이 亦是安當함을 看做하노라

短篇小說 惡夢 【七】

咸大勳 作 夕影 畵

영자는 지나간 옛꿈에서 다시 현실로 도라와 어제밤 ××그림에서 만나 원철이가하든말을 되푸리해 생각하면서 어즈러워지는 마음의 갈피를잡으려하엿다。

『참말루 그이네 가정은 그러케두 불화한가? 진정으루 원철은 경숙이를 버리구 나와 결혼을해 줄것인가? 그리구참말루 경숙이와는 어쩔수업는 책임-정조-문제때문에결혼을 햇든가? 그러다문 그이가 나를 아즉두 진정으루 사랑하구 잇는겐가……참말루 그럴가?』

이러케도 생각해 보고『안야그려친안을께야 웨나를 진정으루사랑한다문 숫재 경숙이와 결혼을하지안엇슬것안야 지긋할짓은 다해노코 이제와서 죽네사네하문 누가 미들줄 아나봐!』

하고하면 원망하는 긴 한숨속에 그것을 부정해도 보앗다 그러나 마음은 허공을떠돌뿐 갈피를 잡을수가 업섯다 다만창박에 입떠러지는 소리만이 애달픈 가슴에 서리운꿈을 떠해줄뿐이다

『편지왓서요』

바시시 방문이 열리드니 어멈이 편지한장을 들어처주고 간다 영자는 온몸의 피가 얼골로 올라오는거처럼 그 편지를 밧는순간엔 낫이 확근 달아 올라옴을 늣기엇다。그것은 어제만낫든 원철이게서온 속달이기때문이다。영자는 무슨 편지를 햇슬가 하고 의심나는 태도로 그편지를 뜨덧다

『어제ㅅ밤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영자씨를 뵈옵고 저는 꿋업는 행복과 희열의 시간을 가젓섯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꿋내 행복된 결과로 끗을맺지못하고 헤여진것이 어떠케 도 한이되는지 몰으겟서요 그러치만 그것이 모-두 제잘못에서 나온것이물 생각할땐 한업는 부끄러움이 온몸을 불살을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긴급하고 또 긴한말슴이 잇사와 이러케 속달로 드리오니 오늘 오후 한시반까지 경성역 이등 대합실로나와 주실수가 업겟습니까 꼭 오늘 만나야 할일이오니 시간을 어기지 마시고 나와주시기를 고대고대 하나이다 ××일 원철드림』

편지는 지극히 간단하엿다 그러나 그편지엔 만나자는용건이 결국 어제ㅅ밤 한 그이야기외 여자에게 별히 보히는 것 갓텃다

『미친사내야 날버리구 딴녀자와 결혼을 허구선 될또 죽네 사네하는거야……』

영자는 편지를 전광마룩으로 찌저 입에다 너코 씹으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빌고잇던 어제ㅅ밤의 원철이를 생각해봣다 그에다는 하소속에는 가정적비극이 꿋입이 그를괴롭피고 잇다는것이 넉넉히증명되기는 하엿다 그러나 웬셈인지 그이의 말이 엇사리 미더지 질안엇다 한때는 그이집 압을 밤길도록 거닐면서 행여 그이얼골이나마 한번볼수업슬가하고 가슴을태운 일도 여러번이엿고 또 그이를 만나문 가슴속에 서리운 애닯운정을 눈물속에 하소도해볼가 햇지만 정작 그이를만나 그이의 변명을듯는 그순간엔 웬셈인지 어롭가티 차지는 자긔마음을 자긔도 것잡을수가 업섯다

그러컨만 지금 그이가 만나자는 한시를 땅치는 소리를들은 영자의 가슴은 두근거려 자리에 안저잇슬수가 업엇다 뎌구나 초두초 재각그리는 략상시게도 한시를 갈으키고잇는게 눈에띄안엿슬땐 영자마음은 더한층정이되잔쿠 바람지는 바다ㅅ물결과도 가티 설레이엇다。

『본정이나 가서 차라두 마실가?』

영자는 설레이는 가슴을 참을수가업시 그만 옷을갈아입고 집을나서고말엇다 그러나 조선은행압헤서 전차를 나려 본정입구편으로 발걸음을 옴길땐 어찐세움인지 누가 뒤에서 부르는것가터서 획끈획끈 몃번이나 뒤를 돌아보앗다。 그러나 부르는사람은 아-모도 업섯다 한편 섭섭도 햇스나 영자는 오히려 다행으로 녁이고 사람의 물결을 헤치면서 명치제과안으로 발길을 드려노앗다

『레몬틔하나만줘요…』

자리를잡고 차를주문햇스나 가슴은 여전히 설레이고 마음은 괴로웟다 그러나 영자는 그이의 약점이라고 약해지려는 자긔맘을 억제하랴는듯이 자긔를혼자꾸지저 도밧다 그러나 마음은 설레기만하엿다 엄마잇지안어서 차시고나서 창념어로 거리를바라보앗건만 웬심인지 자긔머리엔 작고만 기다림에 초조한 원철의 얼골이 나타낫다 영자는그걸이 스려는듯이 머리를 도리도리흔들어보기도 하엿다 그러나그환영 그원철의 환영 그것은마-치 꿈속에 달려오는 악마와도가티 영자의머리를파고 들엇다 영자는 더안저잇슬수가업서서반만먹은차를 그대로 버려두고그 찻집을 나오고 말엇다

家庭醫學

석회봉대를하고서

問 생은금년삼십세의 남자인대 일년전에 결핵성관절염으로 인하야 작년삼월부터 석회봉대(키부쓰)를 하고만 오개월만에 풀엇는데 관절염은나핫스나 관절이 잘놉지안코 발복이 비트러져서 곤난하오니 엇지하면원상회복이될수잇슬까요 (義州李)

答 키부쓰를한후 너무오래동안시내면 종종당신과가티 되는 일이잇습니다 그런고로 키부쓰를하게되면 이런점에 의사가만히 관심하게됩니다 그것은쓰지안하는관계로 구며(彎直)져 그리되는것이오니 그정도가 심하면 수술을 하여야 될것이고 그러치안할때에는관절마찰을하여야됩니다 관절마찰은안마를하는사람이 잘하오나강직이심하면전신마취를하여 통증을모르게하는일도 잇스니 한번전문과에 진찰을바더보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목에잇는혹과취직

問 이십세된남자인데 수년전 목병으로인하여 량편목을 수술을하엿는데 량목에는 허물이잇습니다 생활난으로 취직하고저 하옵는데 이허물을 가지고도 철도원이나 순사시험을 칠수잇습니까? 만일에 칠수업다면 칠수잇는 시험을 가르켜 주시요 또 의생시험을 칠수업슬까요잘가르켜주시고 지도하여주시요 (城北K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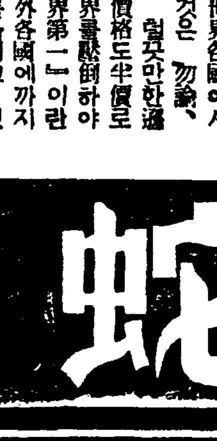
答 어느정도의혹인지 알수업스나 그것으로 시험에 합격치못하거나 취직못하는일은 업슬줄로생각합니다。수술한 뒤에도 병이 전래하지아니하엿다면 별문제이지만 다나은뒤면 아모념려업스니 힘써 공부하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취직과는 별문제로 혹이대단바테서 보기실흘 정도라면 정형수술을 하는것이 조켓습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金[illegible])

ランランチック(란란직구)는 열이면 열사람이 다 賞讚
천이면 천사람이 다 滿悅

新日本의傑作品
型은싱가-미싱과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國產 蛇目미싱

國進日本!의霸者
이數 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잇는 躍進日本의工業은、文字그대로의 進步發展의結晶으로서 世界的驚異를 밧고잇는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產蛇目재봉틀〃은生產하게되엿습니다。
國產 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는故로 모든部分品이 世界各國에서 마음대로 살수잇는것은 勿論、舶來品과比較하야서 조곰만한遜色도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됨으로 只今은全世界를壓倒하야『적고도 優秀한世界第一』이란 定評을밧고 멀이海外各國에까지 輸出이 急速한피-치를올이고 잇슴니다。
東京 大阪의 本工場에서는 年產額二百三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只今은 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되여잇슴니다。
全鮮進出를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 하고잇사오니希望區域를申込하시면年額上豫想數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여드립니다。



萬國標準型 國產蛇目미싱
希望者는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代理店係로

現在各代理店
忠北 崔翼煥商店 / 鳳山 吳得龍商店 / 延白 延安裁縫機械商會 / 甲山 鮮興商店 / 海州 福聲商店 / 青陽 尹斗煥商店 / 南原 朴琪永商店 / 洪城 朴福乙商店 / 鎭津 裁縫機械商會 / 昌城 甲子蠶業組合ミシン部 / 慶州 尹鍾澤商店 / 信川 金錫鎬商店 / 平原 李一枝商店 / 鐵山 李萬鉉商店 / 扶餘 李俊珪商店 / 安岳 金秉律商店 / 鎭南浦 歐米裁縫機械商會 / 龍川 萬尙鉉商店 / 江華 高必善商店
新義州 金明熙商店 / 平壤 各國ミシン商會 / 金泉 朴聖鎭商店 / 尙州 朴容勳商店 / 晋州 二中商店 / 水原 河相奎商店 / 裡里 裡里ミシン商會 / 黃州 玄應八商店 / 松禾 李基元商店 / 井邑 井邑ミシン商會 / 昌寧 崔奉世商店 / 安城 崔峯商店 / 加平 鄭泰復商店 / 谷山 郭南龍商店 / 江西 平和商會ミシン部 / 宜寧 宣寧ミシン商會 / 大田 鳳一鎭商店 / 醴泉 黃在宇商店 / 群山 鄭石九商店 / 論山 東亞ミシン商會

資本金百萬圓
東京 大阪 帝國ミシン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本社 東京市中野區富園町
各地支社 大阪、名古屋、靜岡、橫濱、神戶、京都、靑森、甲府其他

舊居遺話 ⑩

湖岩

倉洞徐氏書齋

東萊鄭 건너쪽 언덕우一帶를 옛날은 倉洞이라고 불럿는데 여기는 達城尉以來 徐氏宗家가 여러代를 살어왓다(樂洞에도 達城尉邸가 잇섯스나 그後에 倉洞으로 옮겨온듯하다) 倉洞徐氏는

門地를 崇尙하든 그當時社會에 잇어서 閥閱이 가장빗낫스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三代政丞과 三代大提學이 連하여서 나게된 때문이다 李朝五百年에 相臣이 만히 나기론 東萊鄭氏의 一門에서 前後入閣한분이 十六人이엇섯는바 이것이 으뜸이 되겟고 壯洞金氏의 一門에서 入閣한분이 十五人이엇섯는바 이것이 다음이 되겟다 그러나 會洞鄭氏나 壯洞金氏가 倉洞徐氏처럼 한집에서 前三代는 政丞이오 後三代는 大提學이 난것은 아니엿스니 이點에 잇서서는 倉洞徐氏의 名閥에 一籌를 讓하지 안흘수가 업다 榮譽로운 벼슬이

連六代 나게된 倉洞徐氏는 比肩할집이 드물지만 그例를 求한다면 저 豊壤趙氏의 連七代史判이 난것과 白沙子孫의 連十一代淸宦이 난것과 어떠할가 倉洞徐氏의 三政丞으로 말하면 晩靜堂(宗泰)를 筆頭로 그아드님 徐命均(嘯皐)은 英祖때 左相이오 命均의 아드님 徐志修(號松岸)는 역시 英祖末의 領相이며 또 三代大提學으로 말하면 前記한 志修의 아드님

徐有臣 이은 正祖때 大提學이오 有臣의 아드님 徐榮輔는 純祖때 大提學이오 榮輔의 아드님 徐箕淳은 憲宗때 大提學이다 이가티 宗泰、命均、志修의 三代入相과 有臣、榮輔、箕淳의 三代典文이 肅宗朝부터 哲宗朝까지 꼭 나려다잇다 그야 門地가 조흐면 高官大爵을 내마음대로 할수잇는 時代이엇스나 그래도 政丞만은 그리容易하게 되는것이 아니어늘 一代도 아니오 三代나 내리나섯고 더구나 大提學가튼 最高의

淸職이 三代나 내리 나섯슴 中에 嘯皐徐命均은 英祖때 淸儉의 名聲이 놉하섯고 大提學中에 純祖때 徐榮輔는 그 文章이 淸尙하엿으로서 見稱하게 되엇스니 經山鄭相國의 神道碑를 보면 當時大提學의 文章을 評하야 갈오되「李晩秀의 華贍과 金祖淳의 遒健과 南公轍의 雅潔과 徐榮輔의 淸高와 沈象奎의 精緻은 지금 생각하면 凛然히 잇지못할것이다」하엿다 이들의 五太史사이에 徐榮輔의文章이 淸高하엿슴을 알것이 아닌가 自來 우리社會에서 가장 崇尙한것은 仕宦보다도

經學과 節義와 道德과 功勳과 文章이니 經學道德으로 文廟에 配享하는 儒賢을 첫재로 꼽고 節義功勳으로 太廟에 從祀하는 名臣을 그 다음으로 삼는다 그럼으로 그 집이 아무리 權勢家라도 그 가운데 名賢이 한분도 업스면 宦族으로 取稱할이다 世間에 名門을 말할때 흔히 延李光金을 먼저 꼽는것은 前者는 沙溪、愼獨齋가튼 어른이 잇고 名賢으로는 月沙가튼 집이 잇고 名賢으로 ... 門이다 徐氏의 三代大臣과 三代太史가 閥閱로 아주 흠잡하지 안흐나 다만 天下사람이 公認할만한

큰名賢 이나 큰節義가 나지 못한것으로 보면 역시 宦族이라고 稱할수밧게업다 그러나 이徐箕淳집이 政丞과 中에 가장 淸華한 閥閱을 가진것만은 누구나 肯定하는바이다 徐氏一門에서 政丞과 大提學이 난것으로 말하면 이밧게도 여러분이 잇스며 淸宦을 지낸분은 거의 車載斗量으로 形容할수잇다。

學藝

乙亥年의創作決算 朝鮮의作家는어데로?

—轉形期의一作家로서의小感—

❶ 嚴興燮

乙亥年의 朝鮮文壇은 文壇有史以來의 劃時期的인 諸現象에 逢着한 實로 深刻한 歷史的過程을 밟아왓스니 『카프』가 解散되고 文藝家協會가 結成되려다

「流會」 되고 創作方法이 論議되다가 未解決그대로 또한해를 넘게되는것들이 바로 그것들이라 할것이다。

한해가 저물을때마다 우리는 거이 慣習的으로 그해一年間의諸成果를 도리켜보는瞬間을 갓게 된다。그러나 우리는 燦爛한成果의 喜悅보다는 언제든지 空虛하기짝이업는 寂寞의 幻滅을 늣기는것이 常例인것이니 今年一年間의 創作界도 嚴密히 말하자면 그러한 感慨의 雰圍氣속에서 한거름도 압서나오지못햇다고본다。

풀이茂盛하게 욱어지고나무가지가 마음껏뻐더 큰그늘을 일으킷다하더라도 거긔에 열매가업다면、열매가잇다해도 그것들이충실하게살이쪄잇지안타면 우리는다가티 收穫期의 悲哀를 늣기게되는것이다。

도리켜 보건댄 今年間의 創作壇은 엇든보아 數年來에보기드믄 活氣를 띄우지안는것은아니나 收穫期의 오늘에잇서 우리의 印象에 남는作品은 果然몃篇이나 되는지 한개의 큰 疑問을 일으킨다。

今年처럼 **「文藝」** 雜誌가만히나오해도 드물다。『朝鮮文壇』『新人文學』等이 그것이며 『朝光』『批判』『新朝鮮』『新東亞』『中央』『新家庭』과가티 如前이 文藝欄을 重視해왓고 朝鮮、東亞、中央 三新聞의 文藝面은 新年號에 力量잇는 新進을 發掘하기에 거이 熱狂的인 競爭을 해내려오고 三新聞中 朝鮮日報는 紙面을 割愛하야 數個月間을 中堅作家群의短篇을 連載해왓스며 中央報는主로 新進作家의 公募로써 그 舞臺를 提供하고 잇는것가튼 느낌까지 주고 ... 에 比하야 發表 ... 間에잇서 모름직이 늣겨온事實이다。

發表機關의 豊富는 優秀한作品의 生産과 새로운作家의 簇出을 피할것일것이나 量에比하야 質的으로 優秀한作品이 적엇음은 정히 섭섭한 現象이 아닐수업다。

될수만잇스면 今年間에 **「發表」** 된創作들을모조리 넘어보고具體的으로 거긔대한 나의感想을 다添加햇스면 싶흔 沈着된 氣分에 잇스나 발서 大部分의作品들이 發表될때마다 評家들의 狙上에올나 날카로운 칼끗헤 요리기도하나 모조모解剖되엿슴으로 이제새삼스럽게 重複하기는 避하고 다만 今年 一年間의 創作界에잇서서 全體的인 傾向 特質 가튼것을 廣汎한範圍에서 몃가지만 말할가 한다。

即 今年 一年間의 朝鮮作家는 大部分이 무엇을 題材해서 作品을썻나? 그들의世界觀은엇더한것들이엿든가? 엇더한創作方法에 立脚하야 어떠한 手法으로作品을썻는가?를 究明해보고 싶흔것이 나의이글을 쓰는動機요 또한意圖인것이다

그럼으로 될수잇는대로 作家와作品을 具體的으로 指摘해서 쓰려고는 생각하나 紙面關係로 大部分이 漠然한雰圍氣속에서 槪念的으로 이야기되지나안홀가 甚히렴려가안되는배도 아니다 다음에 나는 今年에 活躍한作家와 그作品을먼저 紹介코저한다

북·레뷰 바라든 지용詩集 ……(一)……

李 歇 河

그러고 이詩와 前後하야 읽은것이라고 記憶하는 詩가운데 또하나 잇지못할 句節이 잇섯다。그것은 다음의 두줄이다。

슬픈 銀眼鏡이 흐릿하게 밤비는 엽흐로 무지개를 그린다。

이두줄은 오날 氏의詩集가운데 다시 그位置를 차자볼수잇스나(六三頁) 나는 이때까지이 두줄을 엇던雜誌에서 읽엇스며 또 그前後가 어떠한가는 全혀 니저섯다。그러나 每年 겨울이 되여 흐린眼鏡에 무지개가 빗칠때가되면 반드시 이아름다운 두줄을 생각하는것이엇다。

이리하야 十餘年前 처음 氏의 詩를 넘은以來 「지용」이라는 만흔 로맨티시즘을 가진일홈은 나에게 잇치지아니하는일홈이되엿다。그래 放學때 가튼 때 서울新聞을 두저거릴 機會가 잇스면 반다시 氏의 일홈을 차저보는것이엇다。그러나 前後七八年을 두고 내가 차자볼수잇는것은 다만 한號의『詩文學』바다를 노래한 三四篇의詩밧게 업섯다。따라내가 이때까지 넘은 氏의 詩라고는 열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밧게 되지안엇섯다。

그러던것이 近來 가리 서울 사람이된 因緣으로 直接 氏를 알고 때때로맛나 氏의 이야기를 듯고 또 가다가는 그야말로 비길데업는 氏의 詩朗誦을 듯는 多幸한 機會를 갓게되는데따라 나는 氏가 내가 卽今까지 생각하드니보다 훨신 더 놀라운 詩人인것을 깨닷고 또 氏에게는 이때까지 百餘篇의 詩가 잇섯다는것을 알엇다。그以來 나는 길이 잇는 대로 氏의 詩를 求하야 넘엇고 또 氏의詩를 求하야 넘으면 넘을사록 氏의 모든 詩를 한데모아 넘어보앗스면 하는 慾心을 抑制할수가 업섯다。

筆者는 여긔 넘어 私事를 적고 부질업는 回想에 빠저들런지 아지못하겟다。그러나 생각컨대 讀者의 氏에對한 經歷도 大槪는 筆者의 그것과 近似하지 아니할까한다。그리고 브즈런한 讀者가운데는 勿論 筆者보다 훨신 더만히 氏의詩에 接觸할 機會를 가진 사람도 잇슬것이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잇서서도 氏는 亦是 가장 吝嗇한 詩人의 하나이 아니엇든가한다 우리는 氏의 주는 기쁨이크고 香氣가 놉흔것을 안다。그러나 우리가 실상 그러한기쁨과 香氣를 누릴수 잇게되는것은 한해에 몃차레식이나될까。여긔우리는 언제든지 氏의詩에 주리며 慾心을 부리지아니할수 업게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긔 마츰내 엇다。오날 처음 氏의 詩集이 出版되엇스매 우리는 한아름 꺽거는 꼿다발처럼 氏의詩集을 그러안고 그의 아름다운 色彩를 香氣를 形體를 輪廓을 마음대로 그리며 엿보며 어러만질수 잇게되엿다。

고래가 이제 橫斷한뒤 海峽이 天幕처럼 퍼덕오。

……힌물결 피여오르는 아래로 바둑돌 자꼬 자꼬 나려가고、

銀방울 날리듯 떠오르는 바다종달새……

한나절 노려보오 훔켜잡고 빨간살 빼스랴고(四頁)。

氏는 무엇보다도 먼저 感覺의 詩人이다。

詩人의 銳敏한 觸手가 이르는곳에 거긔는 반다시 새로운 發見이 잇고 새로운 發見이잇는곳에 반다시 기쁨이 떠른다

快晴! 짓푸른 六月都市는 한層階 더자랏다(一一頁)。

正午 가까운 海峽은 白墨痕跡이 的歷한 圓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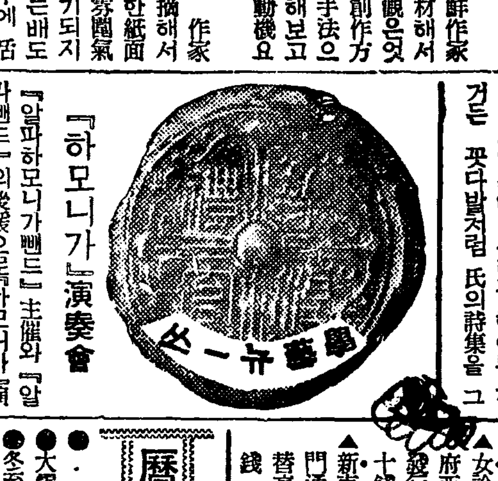
마스트 끗헤 붉은旗가 하늘보다 곱다。

甘藍 포기 포기 솟아 오르듯 茂盛한 물이랑이어!(二四頁)。

地理教室專用地圖는 다시 돌아와 보는 美麗한 七月의庭園。

千島列島附近 가장 짓푸른 곳은 眞實한 바다보다 깁다(一六頁)。

하나치고 기쁘고 多幸한 發見아닌것이 업다。그러고 이러한 發見을 우리는 氏의詩集의 이르는곳마다 차자볼수 잇는것이다。



『하모니가』演奏會

『알파하모니가빤드』主催와『알파빤드』의後援으로『하모니가』演奏會를 오는十二月八日(日)下午七時부터 市內太平通來青閣(京城日報社講堂)에서연다고한다

新刊紹介

▲最新文學書簡集 柳春汀編 京城府寬勳洞一四六 京城圖書店發行 振替京城二三七三四番 定價八十錢 送料四錢

▲三千里 送年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三千里社發行 振替京城一九四九番 定價三十錢 送料四錢

▲女論 十一月號 文藝號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三三 女論社發行 振替京城八一二番 定價 十錢

▲新東亞 十二月號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發行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曆 十二月八日(日) 十一月建戊子(大)十三日 戊午·火·星·破

●大雪八日(舊月十三日) ●冬至二十三日(廿八日)

黑風 【194】

韓龍雲 作 金熊超 畵

복수(復讐) 4

마동은 왕한의말을 듯고 다소 안심이 되얏스나 그래도의심이 아조 풀리지는 못하얏다

『말슴은 잘드럿습니다 장지섬으로 말하면 실로 죄악이만흔 사람입니다 제명에 죽지 못하는것이 당연한 일이겟지오 선생님이 그일을 행하실 때에는 무서운 생각뿐이엇지마는 그뒤로는 미상불 통쾌하게도 생각하얏습니다 저는 그때에 선생님이 주시든 돈을 가지고 피신하야 다니다가 이곳에 와서 장가를들고 여러해를 지나는데 저의 종적은 아모도 아는 사람이 업습니다 그것만은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저도 물론 선생님의 과거사를 입밧게 내일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만일 소용되신다면 만흔돈은 모르되 몃천원이나 일이만원쯤은 수응하야 드릴수가 잇습니다』

하고 왕한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동은 아직도 제 발이저리어서 왕한을 의심하는 생각이 다풀리지 못하얏다

『고마운말이오 나는 별로 쓸일도업고 돈쓸일이 잇다 할지라도 지금 마동씨의 돈을 쓸리는 업습니다 아모쪼록 부지런이 저축하야서 잘사실도리를 하시오 그러나 나중에 큰돈을 모으신다면 그때는 내가 돈을 어더 쓸는지도 모르지오』

왕한은 마동의 의심이 풀리도록 여러가지로 말을하얏다。마동이도 왕한의 정당하고 진실한 언동에 감동되야서 화연히 의심을 풀려버렷다

이튼날 하오두시는 콤난이가 향항에 도착하는 시간이엇다 왕한은 오정부터 부두에 나가서 기다렷스나 배는 정각보다 늣저서 오후여섯시에 도착하게되얏다 지평선의 서쪽갓을 걸쳐서 넘어가는 태양의 남은빛이 먼 하늘의 엷은구름을 물드리고 그놀의 붉은빗치 다시 바다위에 반영되야 한폭의 산그림(活畫)이 생각하는 그색갈들의 회포를 얼마케 자아내엇다는것을、시인이 아닌 왕한과 콤난으로서는、늣기기는 할지언정 표현할수는 업는일이엇다 황혼의 바다빗출 살가리 헤치고 드러오는 배는 모든 행복을실어다가 항구사람에게 주는 뜻이 다분이 드러온다 배스머리에 나선 여러사람중에 눈빗가튼 소복을 입고 여러날 항해의 피곤한듯이 한손으로 닷줄을 잡고서서 부두에나선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녀자를 얼골로는 알수업스나 모습과자태로 보아 콤난인줄을 아는것은 오직 왕한이엇다 콤난은 실로 바다에서 솟은 백합이엇다 그것을 바라보는 왕한의 심사는 산란하얏다 엇잿 생각나는것은 콤난이가 소복한것이 이상하얏다 배가 가까이 올때에 콤난이가 왕한을 보앗다 왕한을보든 콤난은 수건을 두르면서 안심한다 하얏다 왕한이도 수건을 드러서 대답하얏다 왕한을 보는 콤난은 반가운 정의 실마리가 그배의 닷줄보다도 굵엇지마는 한편으로는 무슨 예감을 늣기어서 가슴이울넝거렷다 콤난을 바라보는 왕한의 가슴도 울넝거렷다 두사람의 가슴이 울넝거리기는 일반이지마는 울넝거리는 속이는 다른것이엇다 그것은 말하지아니하야도 알만한것이다

배가 부두에 닷자 누구보다도 먼저 나리는것은 콤난이엇다 조딱밋헤 기다리고잇든 왕한은 콤난을 마지면서 무든 악수를 하얏다 콤난은 애인의손을 잡엇지마는 왕한은 친구의손을 잡은것이엇다 콤난의손은 떠웟지마는 왕한의손은 그러치 아니하얏다

「선생님 여기까지 나와주서서 감사합니다」

「여러날 항해에 얼마나 괴로우섯서요 중간에 풍파나 업섯든가요?」

콤난과 왕한의 말은 꼿나지 아니한채로 왕한은 콤난의 행장을 바더드렷다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新人을 招請한다!!

應募期限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小說** 四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에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십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一篇三十圓

◇**戲曲** 一幕以上三幕以內의것으로 쓰시되 글씨를 똑똑히 정하게 쓰시요 賞金=首席一篇五十圓 次席 三十圓

◇**詩** 長短은 隨意로하시고 每人이 數篇式、應募해도 無妨합니다 賞金=首席一篇 十圓 次席一篇 五圓

◇**時調**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民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 드립니다

◇**童話** 슬픈이야기보다、깁부고 기운나는이야기를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로 쓰십시요 賞金=入選者若干篇에 對하야 各篇에十圓式

◇**童謠** 入選者若干人에게 賞金各五圓式드림

注意 ●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하고原稿를 一切返還치안습니다 ●보내실때는『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쓰서야됩니다

朝鮮日報社學藝部 白

겨울은子宮病의 發生期! 豫防과治療를 맘대로하게된 婦人病心得書無代進呈

子宮病의症勢

子宮病이라는것은 엇게말할수업시 그種類가 만습니다만은 其中에도第一甚한病症勢만 몃가지 말씀하면 첫재로月經이 不順하야지고 月經時마다압흐고 頭痛眩氣도나며 下腹腰部가땡기고압흐며 手足과허리가 여름이나겨울이나 어름가티차고下腹에덩어리가생겨서 도라다니는것처럼압흐며大小便이잘通하지안코發熱惡寒도나며 局部에서는간지럽고허고、계란흰자가튼냉물이흘으게되면 벌서子宮病의一種인대하증이 잘못되준거입니다

이대하증이라는것은대개男性에게서淋疾、梅毒의性病이傳染되여 發生하는것이지만其外에도月經時의부조섭으로 發生하는수도잇슴니다 냉물의色이白色에서黃色、黃色에서靑色、綠色으로變하며、分量이만키도하고적기도하며、體質과病勢에따라날마다흘으기도하고、月經前後에조금식보기도합니다 이와가티種類와分量이틀니는것은急性、慢性의病性質에따라달으지만 냉물이흘으면子宮病卽子宮內膜炎、或은子宮頸管加答兒、子宮實質炎、卵巢喇叭管炎等의病이잇다는것을 알어야합니다

그러치만普通婦人들께서는 누구던지女性이면조금식대하증이잇는것이거니하고아무治療도하시지안코잇다가後日에子宮病으로因하야 一家庭이不和하게되거나애기를못낫는다고 離婚을當하시는것은참으로寒心한일이올시다

무서운 대하증의害毒

이와가티 대하증과子宮病과는密接한關係가잇는것이지만特히이대하증의무서운理由로는적재로不感症이되여서妊娠을못하게하는原因이되는것입니다다시자세히말하면子宮의炎症과障害로부터흘으는냉물에는强한酸性이잇서서그害毒으로하야妊娠을못하게되는것입니다

或시妊娠을한다하드래도流產、早產、難產을하게됩니다 대하증의害毒은이것뿐이안이라頑固한냉물이흘으게되면體內의血液이消耗되는까닭으로貧血症이되며몸은衰弱하고、顔色이낫버서呼吸困難、心悸亢進、手足과허리가저리고、元氣가업고、四肢가노곤해지며、하품이나고、消化不良이생기며、가슴이답답하고、頭痛眩暈等으로辛苦를하게되며、甚하면神經衰弱、히스테리症까지 대하증으로부터 오는例도잇스니 一生에重大한事

물으면不幸 病이안입니까

世上에는五年、十年이란기나긴 月日을病魔로辛苦하시는 不幸한분도잇고、또는여러가지迷信에빠저서 貴한金錢을虛費하고治療期를 노치는實例가許多하오며 結婚後 二三年이지나도록 子宮病으로하야애기를못낫는것을흠으고自己를 夫婦間에는애기를못낫는八字인줄만 알고自暴自棄하야一生을墮落식히고一家庭을破產식히는例도하나둘이안입니다만은그것은큰誤解이오니여러분은무엇보다도먼저自己自身이病에對한衛生智識을갓잡어가지고適當한治療와服藥을하시는것이患者여러분의先決問題이올시다

現代名醫婦人科三大醫學博士는 『婦人病心得書』라는題目下에

◇婦人病의原因과治療法
◇대하증의原因과治療法
◇月經時의調攝과注意
◇常習頭痛과眩氣症
◇히스테리와神經衰弱
◇女性의性病治療法
◇妊娠前後의조섭법
◇妊娠을판단하는법
◇不感症과不姙症의

原因과治療法

其他女子一生에對한 衛生智識을 누구던지읽으면 잘알도록 親切히指示한美冊이오니 讀者여러분은하로밧비 請求해보시고 衛生智識에 一助가되신다면 感謝하겟습니다(寫眞은大阪市西成區中開町五丁目四、朴正淑氏따님)朴正淑氏는婦人病良藥、命之母를服用하시고、多年間辛苦하든 子宮病을 根治식히고 妊娠하야 出產하시고보내주신 感謝狀속에 드른愛兒의寫眞이올시다 命之母本舖에서는過去三十餘年間數多한 婦人病患者를 內服藥命之母로서 根治하게하고、妊娠出產하게한 實例는날마다모여드는 全快者諸氏의感謝狀과 寫眞禮狀이 證明하오니 조금도躊躇마시고 하로밧비一次試用하사 닥처오는 不幸을未然에 防止하시기를 바라나이다 命之母를 服用하실분은藥代金을 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 또는小爲替로先金注文하시는것이 第一便利하오나 藥量을指定못하시는분은 病勢만 자세히적어보내시면代金引換으로適當하게보내드리나이다 藥價는六日分一圓 一三日分二圓 二〇日分三圓 三五日分五圓이온대藥을 사시지안트래도 本舖에서 發行하는婦人病心得書만은누구에게던지無代進呈하오니 하로밧삐申込하시기바라나이다

東京市京橋區八丁堀三丁目 命之母本舖 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古今東西의 長壽者調查

古代記錄의誤傳—百八十五歲의 實例—百歲의長壽를保持한것은 今昔은勿論將來도至難事

옛날支那孫思邈은 百二十歲의壽命을 가젓다고傳하고 梁簡이라는道士는百四十歲 我國日의武內宿禰이 百四歲 歐洲에도아담의 壽命은約一千歲라고傳하엿다。其他古英雄、碩學中에는三百歲四百歲라고하는長壽說을口傳하여온것이相當히만타。그러나古人들이 果然그와가치長壽엿든가하면이것은大端疑心나는일이다、

웨그러냐하면엇던歷史家의말에는 武內宿禰이 決코한사람이안이라數代相續하야서同一名을使用하고잇던各人의年齡을合算한것이四百年엿슬거시라고하고

古代 의年曆은三개월로써 一年을삼엇다가 그後에는 八個月로써 一年을삼은 일도잇다고하엿다—그런故로녯날 長壽者의 長命은 大部分信用할 수가업는것이다。

그러나 個中에는事實以上의長壽를維持하고잇는사람은 相當히잇서서 저有名한 不老長壽論의著者로 써알여진메치니꼽흐博士가 스스로訪問하여보앗다고하는로비노婦人은百五十歲의 老齡으로巴里郊外에서生活하고잇는것을實地目睹하엿다하고 또구라스코寺院建設者겐치간氏는百八十五歲까지 延命하엿다는것도 信用할만한

事實 로서記錄되야잇다。設使그數에잇서서僅少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確實한 實例가잇는것은方法에따러서는 우리들도그와가치 오래살수 잇다는 希望을 達할지도모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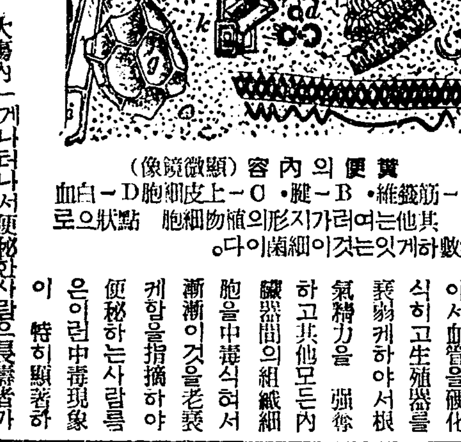
長壽者에對하야生覺할時必然的으로生覺나는것은即歐洲바르칸半島의一小國인부루가리아住民이다。이부루가리아國에는녯날부터長壽者가甚히만타—이것을異常스럽게 生覺한메치니꼽흐博士가그原因을 探究하여본結果이나라住民은녯날부터酸性牛乳를常用하고잇는 것이다。그리하야이

習慣 酸性牛乳中에生存하여잇는乳酸菌이라는一種細菌이老衰를막고壽命을延長하는데깁흔關係가잇는것이判明되얏다 玆에메치니꼽흐博士의 不老長壽論이唱導되얏는바 이長壽論의 骨子는 次項에參考하시기를 바라고陳述한다。

醫學으로— 보와安當한 不老長壽法

便秘하는분들은短命

메치니꼽흐博士는사람의 大腸內에는無數한細菌이잇서서이것이不斷히醱酵、腐敗를이르키여그毒素가全身을循環하야서血管을硬化식히고生殖器를衰弱케하야서根氣精力을 强奪하고其他모든內臟器間의組織細胞를中毒식혀서漸漸이것을老衰케함을指摘하야 便秘하는사람들은이런中毒現象이 特히顯著하게나타나서便秘한사람은長壽者가 적다고하는것도亦是그때문이라고 한다



(像鏡微顯)容內의便糞

A—纖維筋 B—腱 C—上皮細胞 D—白血球 其他는여러가지形의細胞狀物로 無數하게잇는것이細菌이다。

그런대 부루가리아住民의 飲用하고잇는 酸性牛乳中의 乳酸菌은大腸內에서 醱酵腐敗를일으키는細菌을 消滅케하야 腸內를淸掃식히는 作用이잇는關係다 이菌에依하야서 腸內가淸掃되야中毒現象이 일어나지안토록하야內臟諸器官의 老衰現象이 이러나지못하고 따라서老衰를막고

壽命을延長할수가 잇다—고하는것이 메치니꼽흐博士의不老長壽論의骨子다。

메치니꼽흐博士에依하야서 乳酸菌이腸內의 淸掃에卓効가잇고더나가서는 長壽에密接한 關係가잇는것이알여진以來 乳酸菌劑의製產이 簇出하게되얏스나 大體로이런 乳酸菌劑를 服用하야特히長壽하엿다고 하는사람이잇는지를 아즉듯지도못하엿다。그것은웬일일가?

그것은乳酸菌은 그菌의生死가恒常問題가되는것으로서、菌이死滅하야잇는것은이다。——그런대粉末과錠劑의乳酸菌劑로는 乳酸菌이短時日에死滅할것은 當然하다고 보고잇다。

整腸의効果와長壽

의効果를乳酸菌劑에 對하야滿足을못어든學界는 이것代身헤ー엑菌劑에새로운 乳酸的効果를發見하게끔되엿다。

헤ー엑菌劑에는 라부라고하는醱酵素가含有되야서 이라부酵素는腸內에乳酸을 醱酵식히는 作用이 잇슴으로 在來의 乳酸菌劑와가튼時日의 經過로 効果를일읍여는업다。

只今헤ー엑菌劑라고하야 腸의淸掃와胃腸病의治療에效果를 認證밧고잇는것에『錠劑와가모도』가잇다

便秘로되는中毒딸으로 血管이硬化되고 血壓이놉고、生殖線이衰弱하야서 根氣精力이 消耗되야서不知不識間에 壽命을縮少식히고잇는사람들이

『錠劑와가모도』를 服用하야서 正便을엇게되고 血壓이 漸漸調整되야서 根氣精力을 徐徐히恢復하야 一步一步

老衰를除去하야長壽

의길을걸고잇는것은 합리로荒唐無稽한長生秘藥이것을 誤信한時代에比하야서漸漸醫學的 知識이正常化한것으로서 醫學界의識者間에그成果가注目되고잇다

『錠劑와가모도』는東京芝公園大門際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에서三百錠入 千錠入의二種이一日四、五錢도못되는 廉價로發賣되고잇는바 近來그聲價를利用하야서 効果에疑心나는類似品、醱母、삐ー루醱母劑라고 하는類似藥이 効하는藥店도잇슴으로 注意하시라。

胃酸過多의 養生法

胃酸過多症은 胃의細胞機能이失調하야서 胃液中의 鹽酸이 過多히分泌되야서 胃酸이만흔 도리여胃가 病이되는데 食後에가슴이 쓰리고트림이나오는것이 痛症인바 甚하여지면 胃痛을느끼고便秘를일으킨다。胃酸過多에 重曹를쓰는때 一時는가슴이 쓰린증이 근치나重曹가 分解되는 炭酸瓦斯를發生함으로 자조자조服用한즉그刺戟으로 一層鹽酸의 刺戟을促成식혀서 도리혀病을오래끌게한다。

그런대『錠劑와가모도』는重曹와 가튼對症的인 藥劑가안이라、病根인胃壁의 細胞에作用하야서 亢進된胃液의 分泌作用을 正常的으로回復식힌다——即胃酸過多의病源에作用함으로『錠劑와가모도』를服用한즉 트림이적고、가슴이안정되고、胃痛이 解消되야서 每日、正便을보게되야서、胃酸過多症이 드듸여快하게된다。

女工生活의過勞와 싸우면서 튼튼한몸으로

(東京) 中島うめ

나는어렷슬때부터(九歲頃)慢性胃腸病으로 每日苦痛으로지내든中 二十歲八月、友人에게서『錠劑와가모도』가 조타는 말을듯고 빨이 買入하엿습니다。(中略)

나는職業을 가진몸으로아츰 五時부터 밤八時까지 晝間에는一分間도 休息이업섯습니다 하로세끼밥도 마시듯기먹는몸으로 一日三回服用도 그리容易한일은 안이엿습니다。그러케 奔忙中에도 二十二歲의三月까지 約一개年과八個月間『錠劑와가모도』를 服用하엿습니다。服用하면서부터는大端히조워지고 胃病은업서지고 二杯式입 먹게되얏스며顔色도 조워젓습니다 (中略)

十月十五日의 工場休日에歸家하엿더니는 元氣旺盛하고 血色조흔 顔色으로하고잇섯스니 家族들의깁분은 말할수업섯습니다 (中略)

그後에도 나는 每日빠지안코 계속하야 服用한德分으로 只今에는 아조恢復되야서 튼튼한몸으로 明朗한 歲月을보내고잇습니다。

進呈!

『錠劑와가모도』抽籤券附特賣 一等、參千圓割增金付勸業債券二枚宛

全國藥店에서 一齊賣出中

詳細는藥店에問議하시오

問題의貿易地設計에 某種黑幕이潛在?

처음設計와는딴판으로利用價値가업서 關係住民對策을講究

【鎭南浦】 미곡의도시 진남포에 연안무역지대(沿岸貿易地帶)문제는 진남포발전상 중대한 문제로 개항이래 사용하든 무역지대는 일부는 제이축항으로 업서지고 남어지는 모창고회사가 전부 점령하여버린관계상 근변에와서는 곡물출회기만되면 연안무역지대문제로 일반곡물업자들은 적지안은 고통을 당하게되여 부당국에 진정을 하는등 각방면으로 여론이 비등하여오든바 부당국에서는 작년도부회의에 결의로 억량긔리(億兩機里)에 간석지(干潟地)수만평을부로 매립하여 일부를 연안무역지대로사용키로되여 이래공사중이든바 이즈음공사가거의 완성되엿는대 엇지된셈인지 처음연안무역지대로서의설계와는 반대로오륙척의 목선을 대이리만치 무역지대의형식을하고 좌우로는 긔선이나대일만치 놉게싸어슬뿐아니라 물이여튼 관계로 도저히 배를대일수 업시만드러 노앗기때문에 일반은 부의 처음설계를 의심하는동시에 더구나 억량긔리민들은 큰긔대를 가젓든이만치 이것이 일부정미업자(精米業者)들의 반대로 암암리에 설계를변경한것이 안인가하여 부당국의 태도를 의심하는 일방 현재설비로는 도저히 연안무역지대로 사용할수 업다고하여 억량긔리 주민들은 방금 그대책을 강구중이라는바 장차 엇더한 결과를 내이겟는지 일반이 매우 주목중이라고한다

華僑事件擴大? 校長教員等檢擧

某種의新端緖를어덧슴인지 海州署高等係再活動

【海州】 귀보=해주읍 남본정(海州邑南本町)에잇는 중국인경영의 중국인소학교(中國人小學校)에서 아동들에게 반만항일사상(反滿抗日思想)을 암암리에 고취시키고잇는 사실이 수일전에 해주서(海州署)고등계의 활동으로 발각되여 동서형사대는 전긔학교를 엄밀히 수색하야 다수의 서적(書籍)과 배일적색채를 띈교과서(敎科書)기타 문서등을 압수하는동시에 그관계자수명을 소환취조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상세한 내용을 아러보면 동서에서는 전긔소환취조중의 관계자수명을 곳돌려보낸후 압수한 교재(敎材)를 비롯하야 상해(上海)남경(南京)방면과 련락한 서신(書信)등을 엄밀히 조사중이엇든데 어떤단서를 어덧슴인지 고등계형사대는 활기를띄고 다시활동을 개시하야 지난일동교교장 왕덕전(王德田)과동교원 교지사(焦志三)량명을 검거하야 본서에인치하는일방그관계자 수명을 소환하야 엄중한 취조를진행중이다 취조에따라반만항일사상을 고취한 교재를 사용한것이 판명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중국내에 잇는 배일사상단체와 엇더한 련락관계나 업는가하야 그배후관계를 추궁하는중인바 이에따라 압호로 더욱확대될듯하다고한다

견되여고중남서에 넘기엿는데 취조가끗나는대로곳송국하리라한다

南浦商民會主催 聯合景品大賣

【鎭南浦】 진남포조선인 거리에는 지난오일부터 변말로성을 확실히 드러내고잇서 조선이상업계의 일중활긔를 뵈내고잇는대 진남포상업가를 총망라한 상민회(商民會)주최로련합경품대회를 십이월말일까지하는 중이라는대 어느상점에서나 일원가치의 물건을 살때마다 경품권을 주고 동일한장소에서 추첨키로되엿다는바 가맹점은 다음갓다고한다

金松國商店(雜貨) 金澤龍商店(旣成服) 金井商會(旣成服) 金在洪商店(布木) 金寶堂(金銀) 金成堂(時計) 金炳觀商店(金物) 李璋鶴商店(雜貨) 利和洋品店(洋品) 田仕文商店(百貨) 德文堂(文具) 德新商店(家具) 東一商店(布木) 大同時計店(時計) 萬貨昌(百貨) 文光商會(鈴木) 福信商店(紙物고무) 成昌洋靴店(洋靴) 孫斗滿商店(布木) 鮮一商店(布木) 瑞光時計店(時計) 沈允彦商店(布木) 吳基運商店(旣成服) 一之商店(雜貨) 安景鎭商店(鈴鼎) 嚴楨欽商店(紙物) 永信昌(雜貨) 元興帽子店(帽子) 全東三商店(雜貨) 全泰順商店(布木) 正直商店(金物) 和平商店(雜貨) 貨泉商店(洋品)

朴炫𤍤氏特志

【彥陽】 경북언양공립보통학교에서도 금년부터 진흥야학(振興夜學)을개시하얏는데 발서생도는 일백사십여명에달하나 그가정생활을 보면 대개가무산아동이라 월사금십전식도 내기가거북함을 압게된 언양유지 박현천(朴炫泉)씨는 금번에도 전학생의월사금을 전담하기로 신립이잇섯는데 일반의 칭송이 매우자자하다한다

鰮巾着網漁業의 水產組發起人會

十、十一間溫井里서開催

【元山】 금년 미증유의 대풍획을본 온어긔선건착망어선(鰮漁機船巾着網漁船)은 한척이 평균 일만오천원의 어획고를 내여긔선저예망어업에 다음가는 어선인만큼 일반당업자는 이것을일종의 리권시하야 매년 허가출원수가 증가하고잇다는바 이에 관하야는 당업자간에 잇서서도 총독부의 의향에 순응하야 함남、강원、경남북 삼도를 한체로한 약구십여척의 온어긔선건착망어업 수산조합을 창립코저 오는십、십일 량일간 금강산온정리(溫井里)공회당에서 당업자의 발기인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고한다

國境重要幹線道 改修工作을計畫

總延長이四萬餘米

【新義州】 평북도내의 중요간선국경도로(國境道路)는개통이후수십년을 경과하여스나 당시예산관계로 단순히부역(賦役)에의하야도로의 수선을 하여왓슬뿐으로 지금까지전연방임하여든 다음네곳을 래년도에는 완성식이려고 총독부에 예산요구중이라한다

▲昌城郡州面及私倉面의 四、〇〇〇米
▲碧潼郡雲時面及松平面의 五、〇〇〇米
▲楚山郡西面 三、〇〇〇米
▲江界郡外貴面及吏西面 三〇、〇〇〇米
合計 四二、五〇〇米

無產兒教育機關 明星學院記念式

【元山】 무산아동의 유일한 교육긔관으로서 현재 이백오십여명 주야학생도를 수용하고 교육하고잇는 원산명성학원(元山明星學院)은 창립이래 춘풍추우 오개성상에 수만은 무산아동을 가르처고 현재또한 수만은아동을 교육하고잇는터인데 금년에는 교사까지 증축하야 동원의장래는 자못빗나게되여간다는바 동원에서는 금팔일이 동학원 창립오주년이되므로 동일오전십일시부터 동학원강당에서 창립오주년긔념식을 성대히 거행하게되엿다고한다

朝窒分賣店員의 物品竊取發見

【興南】 조질회사의 징영공급소 분매점에 부정사건이 생기엿다 전시민의 눈살을마즈면서도 황금의 위력으로 이모ㅣ든 비난을 도외시하고 날노날노 그영업에 팽창한발전을 보고잇든조질회사공급소분소(朝窒會社供給所分所)에 근무하는 원적함북주을군주북면 용장리사는 주운작(朱雲作)은 소화십년일월부터 동년십일월까지 주인의신임이두

全州의當面問題(七)

傘製扇製의改良과 全州產業組의設立

全州支局 一記者

전주부의 공업계를 회고하야현재 부세일반 에나타난 최근통계표를 표준하야본다면 약삼십종의 공업품에 일백오십만원가량의 생산액을가지고잇다 그가운데 전주부내에만 주거를하고잇는세민으로서 중요한생계를목표로한 전주특산품중 뺄수업는 유물(油物)계에 제선(製扇)과 제산(製傘)만으로 본다해도 년 산액 십오만원이나된다하며 도저히 산품을 등한시할수업슬만큼 타지방에서 어더볼수업는미려하고 견고한물건을 만드러내고잇다 그러나판매자의 무통제로인하야 경쟁판매로생하는 불정상품생산이 근래에와서 큰 결점이다 이로인하야 최근의 전주의우산을 상품에 빗최여비판한다면 말할수업슬만큼한심천만하다하니 그실례를 든다면 우산한개에 이십삼사전의놀랄만한최저가격으로 살수가잇다 그러나 사용의수명시간을본다면 한참심한장마때에는하로에 두세개를 사용하리만큼 쉬ㅣ파손되게되니 과연상품으로서의사명이란 한심하기짝이업다 이러한점에 크게 관심을하야 유물의성가를 놉히겟다는뜻으로 일즉 동경한계를떠나 고향전주에와서잇는 정래량(鄭來亮)군은유물통제의 전제긔관으로 의무조합인 전주특산제산조합을 설립하고 사재 수만원을던저 각생산자의 산품(産品)원료를 염가로 공동구입하야 분배하는등 기타부업장려의 원조까지 하야 오게됨으로 상품의 품질향상과 판매의 통제는 제절로 호전되야 근자에 와서는 차차로 정당한 가격에 상품다운 상품을 구경할수잇다 이에따러 전긔제산조합인『전주특산제산조합』만으로는 품질향상에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수업다하야 지난십월경에는 산업조합 인가신청을 총독부당국에 제축하고 적극적운동을 하는일방 특산품취체령 인가를 도당국에 신청중이라 한다 만약전긔 당국에 신청중의 인가조합인가가 하부만된다면 업무를 일층 확장함과 동시에 방금 생산상 무통제 상태에 잇는 『깃채』와 초갑(草匣)등도 좀더 상품을 현대화 식히는동시에 외국에 수출품으로、조금도 붓그러움지 안토록 하고저 영업과목에너허 산업통제에 주력하라하니 전주의 산업계를 위하야 군을만나게되는것도 다시업는 광명인동시에 압호로 더욱 만흔 발전을 바라는바이다

◇

꼿흐로 전주의 약령시(藥令市)에 대한 연혁을간단히 초하야 전주부당국에 입언을 드리고저한다 전주약령시는 거금 십삼년전대정십이년에 전주상공계유지 몌몌의 발긔로 창설하엿스나 이삼년이못되야 매우빈약한상태에잇든중 때맛침 본정통에사는 박계조(朴季祚)씨가 자진하야약십년동안을 무려전주약령시를개인경영하다십히 독단으로 지지하여왓다 그러나 씨는 개인사정으로 부득히 만십일년을 마지한 금년에와서는 약령시와손을나누지치못하게되자씨는전주약상인을 선동하야 조합을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전긔 약령사무를 인계하엿다한다 물론한의약조합에서도 충실히 동약령시를 운전할술이잇으나 그러나차제에 전주부 당국자여 이약령시를 적극적으로 원조하라 매년 취인고를 본다면 륙십여만원이나된다하니 약령개시약오십일만에 전긔와갓흔 거대한 금액이전주의 상게에서 혜영흘친다하면 이에따러 떠러지는 수익이 전주적으로 적지안흘 것이다 과거 십삼년간 전주의약령시가별 다른 고장이 업시는 지내왓스나 당국의 원조라고는 조금도 차저볼수업섯다。 산업장려의 근본정신으로 보다할지언정 엇지 당국자로서 오십일만에 륙십여만원의 취인고를가지고잇는 전주약령시를 수수방관할가부냐 금년부터라도 이사업에도움을지어다 전주부당국자여!

(계속)

三倍乃至五倍로 地料를無理引上

甕津某地主의無理한要求에 數十借地人結束反對

【甕津】 황해도옹진읍은 신흥도시로서 팔면상대할만큼 날로발전되여가는 중인데 이를호기로지주발호가심하야 도지를 삼배내지 오배가량을 인상하여가지고 수십차지인(借地人)에게고지서를 발부하얏슴으로 차지인측에서는 결속하야가지고 지주와항쟁중이라는데 사실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읍내에 사무소를둔 난파농장(難波農場)의 소유가 읍내에 넘는면적을 차지하고잇는데 작년까지도 일평에대하야 일년간의대지료로 전식 계산지불하든것을 금년에는 일평에대하야 삼배내지 오배가량을 인상하야가지고 수십명 차지인에게고지서를 발부하얏슴으로 차지인측에서는 가치한 보조를 취하야가지고 무리한이상에 항쟁중이라는바 산례를 들면 읍내심상화(沈相和)씨는소화구년도에 대지료로 십사원팔십전을지불하든것은 금번에는 칠십팔원칠십전으로 인상하얏스며 고명한(高明漢)씨는 소화십년도에 구십팔간의 대지료로 합계 이십구원 십전을 무엇는데 금변에는 칠십팔원 사십전으로 역시 인상한 고지서를 발부하얏슴으로 명춘에는 집을허러가지고 다른대지를 구하야 옴겨지을 의향을 가진사람도만흠으로 옹진발전에 대하야 일대암영을 주는것이라하야 사회의 물의가놉다고한다

咸南山間五郡에 要救急者十餘萬

咸南道當局에서救濟策으로 藥草採取를積極督勵

【咸興】 함남도내산간오군에는래해등으로 말못할 흉작을맛나방금 엄동을 압두고 긔한에 떨고잇는 리재민이 놀랄만큼 십여만명에달한다함은 본보에 루보한바어니와 함남도당국에서는 이들재민들의 구제책의 하나로 전긔오군의 산지대에 무진장으로잇는 각종약초(藥草)를 적극적 채취하게장려할터이라는데 약초 채취예상액은 이십륙만이천여근으로 그가격은 사만오천원가량이라고한다

衛生施設缺乏을 邑民이大非難

【安州】 평남안주읍(安州邑)은문화로나 경제로나 다른도시에 비하야 시설에 별로 손색이 업지만 한가지 유감되는바는 만여인구를 가진안주요 닷새에 한번식열니는 장날에는 만여장꾼이 집합하는곳으로서 공동변소(共同便所)가 단한곳뿐으로 대소변에 자유가 끗나다는데 읍민은 당국에증설을 요구한바도 이섯지만 오날까지 한등의 대책이업시 그날그날 지난다는데 장날하로를 지나면 으슥한 곳목마다 대소변의 사태로 통행인에코를 지른다고일반은 당국의 태만에비난이자자하다고한다

會計檢查報告로 府會一時大波瀾

【鎭南浦】 지난 륙일오후한시부터 진남포부 제이십구회부회의(府會議)를 부청루상에서 부의장 리종섭(李鍾燮)씨사회로 개최하고 소화구년도 진남포부세입출결산보고(昭和九年度鎭南浦府歲入出決算報告)를 하엿는데검사위원중 김병근(金秉根)씨는基本財產、道路使用料、新烘場使用料、遊園地、水道料徵收、府尹接待費等 십수조목의 수입과 지출이 불합리한것을 보고하엿다는바 그중에도 도로사용료 징수상태를 보면사용자에 따라서 징수방법이 갓지안타는 것과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인으로 조선말도 아지못하는 일본내지인을 사용하여 도로사용료 징수액이 감소되엿스며 더구나 부윤의 륙백여원에 접대비를 루용한것 갓흔것은 가장재미롭지 못한것이라고 장시간 세밀한 보고가끗나자 조정호(趙定鎬)씨로 부터 부도로 공사중청부업자들이 매양주음게약과는 위반행위를 하니 부당국자들은 그점을 엇더케생각하고 처리하는냐고 하는질문까지잇서서 장내공긔는 돌연험악 하게되여 의장은 휴회를선언하고 부리사자로부터 구구한 답변이 잇슨후 이회게검사보고를 무사히 통과식히겟느냐말겟느냐 장시간 의론이 분분하다가 금후부당국자의 엄중한주의를요하고 무사통과한후동네시경 폐회하엿다고한다

多年懸案中에잇든 朱伊公普落成

【定平】 정평군주이면(定平郡朱伊面)에는 아동의교육긔관이 업서 일반유지의 희망과 당국의 두통거리엿는데 근일 도당국의 인가를 어더 공사를 진행중 이제 그락성을보게되여 래십이일 신오일의 길일(吉日)을 택하야 락성식을 거행하리라는데 이로서 정평군은 일면일교제가 실

國境警備機의 着陸場所決定

【新義州】 대안(對岸)에 출몰하는 비만군、토병、마적등의 조선내침입(侵入)방지대책을연구중에잇든 평북도 경찰부에서는제반 국경경비긔(警備機)를 구입하엿스나 착륙장(着陸場)이업서 신의주 중강(中江)간에 착륙후보지를 조사중이든바 임시적착륙장을 다음세곳에 설치하기로 되엿다。

▲[illegible](楚山警察署出張所前廣場)
▲大吉(昌城郡大吉里의貯水地)
▲[illegible](昌城邑內의上流沙原)

騷然한咸南國境 越境討伐卅八回

出動人員이六百餘

【咸興】 함남도경찰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사월부터십일월까지 칠개월간 함남국경 혜산(惠山)신갈파(新乫坡)호인(好仁)삼서에서 공산군도변을 토벌할려고 월경출동한 회수는 삼십팔회로서 출동연인원은 륙백삼명에달하며 교전한 토벌공군의 루계는 실로 이천삼백오십여명이나된다 그리고 전긔삼경찰서관내에서 정보(情報)와 경계로 응원에출동한 자위단(自衛團)은 오천수로 백일회에 연인원은 오천삼십삼명의 다수에달한다고한다

定平支局主催 料理講習盛況

【定平】 본보정평지국주최로 지난 이、삼량일간 요리강습회를 강사진흥룡(陳興龍)씨를 초청하여 정평군 부내면 사무소회의실(定平郡府內面事務所會議室)에서 개최하엿든바 예상이상의대호평을어더 무사히 예정기일을 맛첫는데 일반부녀자의 희망으로 일일간 연기하여 그이일인 오일에 강습회는성대히끗마추엇다한다

天候快晴으로 明太乾燥好調

【興南】 지리하게 흐리엿든 천긔는 작금에야 쾌청을 고하야 서호일대 어민들의 수미를펴게 되엿다 압흐로 큰바람만 업고 그산출만여하면 느지나마 그리큰손실은 업슬것이라한다

현되엿다고 일반은 기뻐한다고한다

司法書士合同

【泰川】 평북태천군(泰川郡)사법서사회에서는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고 상호의리익과 편리를 도모코저 지난 일일부터 시내의 사법서사업무를 통일하고 리익을 평균배당키로되엿다는데 방금 연합사무소를 물색중이라한다

會寧蘇山金組 貸付總額二萬圓 每人當百二十五圓

【會寧】 회령소산금융조합(會寧蘇山金融組合)은농민을 본위로삼아 설치된 금융긔관인데 소화구년도에는 조합원 일천사백인에 대부액이 십륙만원이던것이 소화십년십일월말 현재는조합원 일천륙백이십오인에 대부액이 이십만원에 매인당 일백이십오원이된다고하니 이것을 비교하여본다면 농민대중의 생활상태가 점점곤난에빠지게 되는것을 여실히 알것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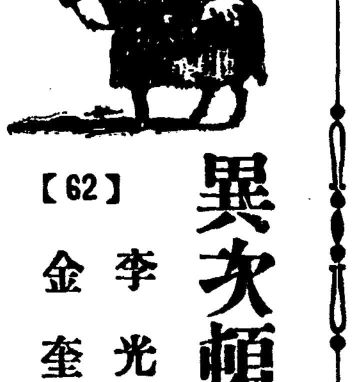
本報讀者에게 美術月曆進呈

【兼二浦】 저물라고하는 을해(乙亥)년도 인제며칠남지 안흔 본사겸이포지국에서는 래병자(丙子)년을 마지하므로써 지국경영만이주년(二週年)을 마지하게되므로 그간 장구한동안 후원과 편달을 앗기지안흔 본보독자에게 의의잇는 긔념품을 진정하고저 계획중이든바 이제 새해를 마지함과 한가지로 신년선물을 겸하야 래십이월하순 현재독자일반에게 극히 아름다운 체재의 미술카렌다ㅣ(丙子)일개식을 진정하게되엿다 한다

異次頓의死

李光洙 作 金奎澤 畫

【62】



이차돈을 잡은 메주한가의 손은 크고 힘잇고도 부드럽고도 따뜻하엿다。

메주한가는 이차돈이 밋처 입을 열 새이도 업시、

『이차돈!』

하고 서방님이라는 존칭도 빼고、

『인제 고구렷 사람이 되오、인제 내 사위가 되오! 신라는 벌서 이차돈을 버리지아니하엿소? 인제 고구려에서 벼슬을 하시오。고구려의 기둥이 되시오!』

하고 간절하게 힘잇게 말하엿다。

이차돈은 취한 술이 다 깨어버렷다。과연 신라는 나를버렷다。버릴뿐더러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함이다、이러케 이차돈은 생각하엿다。거칠아비가 고구려로 오는것은 자긔를 죽이려오는것이다。고구려사람의손을 빌어서 미워하는 사람을죽이는것은 신라에서 예부터 써오는 방법이다。그러나 선마로가 무엇을 말하느냐。그편지가 제야심을 펴기 위하여서 고구려에 대하야、제일몸이오 제 친 동긔인 이를 무함하고 동시에 입금손에 피안 뭇치고 죽여버리랴는 이 가장 사랑하는 이차돈을 제것을 말함이아니냐。이것을 생각하면 이차돈은 분이 가슴에 북바침을 깨달앗다。당장 신라로 달려가서 음모의 중심인 선마로와 공목과 알공과 거칠아비를 한칼로 죽여버리고 십헛다。

『그러치마는 아아 그러치마는』

하고 이차돈은 가슴이 쓰림을 깨닷는다。

그러치마는 그러타고 고구려사람이 되어 고구려의 부귀를 누려? 메주한가의 사위요、본래는 신라의 왕족、이만하면 인물을 차죽이급한 고구려에서 영화를 누릴것은 확실하엿다。그런 예도 옛날에는 잇섯다。

『그러치마는』

하고 이차돈은 늙은 조부마로를 생각하엿다。

만일 한아비지가 여긔 계시다면? 하고 생각하여보앗다。그것은 무론 문제도 안 될것이다。

『나는 신라사람이다!』

한 마듸면 고만이아니냐?

『그러치마는 신라는 너를 버리지아니하느냐。너를 죽이라고 자객을 보내고 또 적국에게 너를 무함하야 적국의 손으로 너를 죽이라고 하지아니하느냐』

이러케 생각하면 이차돈은 메주한가의 권하는 말에도 넘너한 이유가 잇음을 부인할수업섯다。

그러나 이차돈의 머리ㅅ속에는 터마로(堤上)의 일이 떠올랏다。고구려에 오는 길에 넘은나루 관원에게 뽐내어 자랑하던 터마로의 정신에 피를 흘리면서 나는 신라사람이로라고 웨치던、차라리 신라의 개도야지가 될지언정、하고 웨치던 양이 떠올랏다。

이차돈은 몸을 흠칫하며、

『메주한가。이몸은 신라사람으로 낫스니 신라사람으로 죽겟소!』

하고 분명하게 힘잇게 대답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낫다。

메주한가는 다만 고개를 끄덕끄덕할뿐이오 더말도 업고 이차돈을 더 붓들지도아니하엿다。

이차돈은 메주한가의 집에서 주는 수레도 버리고 눈오는 밤시길을 혼자 걸어서 거울보고의 집으로 돌아왓다。

방에는 거울보고의 딸 반달이 홀로 안저서 기다리고 잇다가。

『이 치운 밤에 어듸서 그리 느즈섯소?』

하고 이차돈의 낫빗을 엿보앗다。

『자지안코 웨 여긔 와잇소?』

하고 이차돈은 반달에게 구찬은드시 말하엿다。

『이몸이 서방님 겨틀 떠나서 어듸를 가오。이몸은 서방님께 바친 몸。인제부터는 미워하시나 고아하시나 서방님 방에서 살라오。들으니까 서방님이 메주한가스댁 따님헌데 반하서 밤마다 늣도록 게시다 하오마는 이 몸을 죽이시기전에는 이몸을 떼어버리시지는 못하시리다。죽어서 저승에를 가서라도 이몸은 서방님을 떨어지지 아니하랴오。그까진 고구렷 계집년헌데 질 이몸으로아시오。이 몸이 밉거든 차라리 서방님이 차신 칼로 이 몸의 목을 버히시거나 가슴을 찔러주오』

하고 이차돈의 옷에 매달려울기를 시작한다。

嚴冬追到 梅毒의知識

梅毒은人類의健康과 生命을滅亡의深淵에導入

治療는正確히

四百年來人類를苦惱하고잇는梅毒은、文化的인今日、더욱蔓延을게속하고잇다。그러면우리는이病菌을徹底的으로人類社會에서共除하지안호면안된다。더구나 梅毒은참으로接觸感染에는 人類의健康生命을危險케하고滅亡에의深淵에誘引하는病이다 그런대 世上사람들은 흔이梅毒에對하야 늘秘密主義를取하고함부로 梅毒을그대로 放任하야不顧하는것은스스로 墓穴을파는것이나갓다 現在梅毒에 苦惱하고 또梅毒의疑心이잇는분은輕症과重症과를不問하고、世上에信用잇는精藥에依하야서血液의淨化、病菌撲滅의올바른療法에 努力할지어다。

全身의冷毒은 動脈硬化症·神經痛 其他餘病을併發

코펜하겐에서는 卅歲以上 卅歲前後의靑年을調査하여본즉 五人에一人의病毒者를내고 獨逸에서는十四人에一人의比로 梅毒患者를보왓다고한다 日本에서도그死亡率을보즉 最近五年間에死者千人中梅毒死亡者九人二分이라고하는可驚할數字를表示하고잇다。

醫學이發達

된日本에서 이와가튼 不好한成績을내고잇는것은 梅毒患者自身이梅毒의 可恐한것을 考慮치안코梅毒死亡者를보는 以上은 現在 生存하야 梅毒諸病에 苦痛을하는關係도잇지만 또이만흔 率밧는분이 만흔것을 밋고잇다。時季가 時季라 이때가되면 結婚生活에 들어가는 사람이 만타。그러나 淸淨無垢한 新婦를 迎하야서는新郞의梅毒豫防線과治療가 必要하다。男便의 梅毒이 新婦에 感染되면 當然히梅毒으로 苦痛하고早流產乃至不姙症에 빠지고 一家는必然的으로 쓸쓸하야 그悲慘한生活에 愉快하지안호면안되게된다。

또一般梅毒

患者도初冬부터、冬期에일으기까지、가장注意할것은 梅毒性冷病에걸이는것으로、普通人은그것을 別로거정업시지내나、그것은큰잘못으로決코 放心하여서는 안될뿐아니라、흔히는血液에 梅毒이 混在하야서、新陳代謝가 順調로 가지안흔結果 全身에 亘하야冷症을 일으키는것으로 亦是이러한 患者에 限하야 神經衰弱症狀으로 늘頭痛、耳鳴、記憶力減退、言語錯亂、道德觀念缺乏等의 症狀이 일어나기쉽고 또一面腦髓의障害와 關節炎、류마지스、動脈硬化等도 冷症이 原因되는일이만타、엇던博士는百七十二名의 神經衰弱者의血液檢査의結果 九十三名의梅毒陽性反應을實驗하엿다고하는報告를하엿다。이만큼神經衰弱을輕視하는것은 참으로危險千萬이다。神經衰弱의 症狀에 依然加速度的으로 梅毒性의 여러가지 發疹이나오고다시그發疹이터저서 破壞性이되야內攻되야서體內貴重한臟器를害하고고무腫、脊髓癆、梅毒性痴呆症等을併發하야서 드듸여死의轉歸를當하는일이頗多하다

그럼으로이런

梅毒性疾患、例컨대梅毒性初期、發疹時代의第二期、第三期의 內臟障害、其他고무腫、骨質破壞、腦中樞의 障害等의 境遇에엇더한 治療法이 理想的일가는아직醫學界의 問題인바、가장無難하고特히 血液淨化를 目的하야서、올바른治療를하고몸全體의淨化와菌毒의消滅을期하기爲하여는 그런意味로 鈴木日本製藥社가 世上의信用을집머지고 製藥上에 自信을가진ベルツ丸은以上陳述한 바와가치 梅毒症狀에對하야 가장有效한效果를發揮할수잇는精藥이다。

服用에따라

全身을 돌어단이는血液中의病毒素를殺菌하야서 體外에排泄식히는結果 몬저第一로 血液이淨化되야가는것은 時時로血液檢査를 하여보면알수잇는 同時에 內臟의各機能이旺盛하게되는것도ベルツ丸이가진 特殊한藥質外用으로 即二重의 效果를 가진 結果이다。一般梅毒、體毒、痳毒、濕毒、冷毒、梅毒性皮膚病、부스름、遺傳梅毒、腦梅毒、脊髓癆、고무腫、動脈硬化、류마치스、便秘等에苦惱한분은 꼭이런特殊한 驅梅內服藥ベルツ丸으로 一時라도放心할수업는梅毒의病根을 撲滅하고幸福스런健康生活을獲得하라。

梅毒과體毒 梅毒性부스름에 베루쓰丸

獨逸ベルツ博士 SUZUKI NIPPON-SEIYAKUS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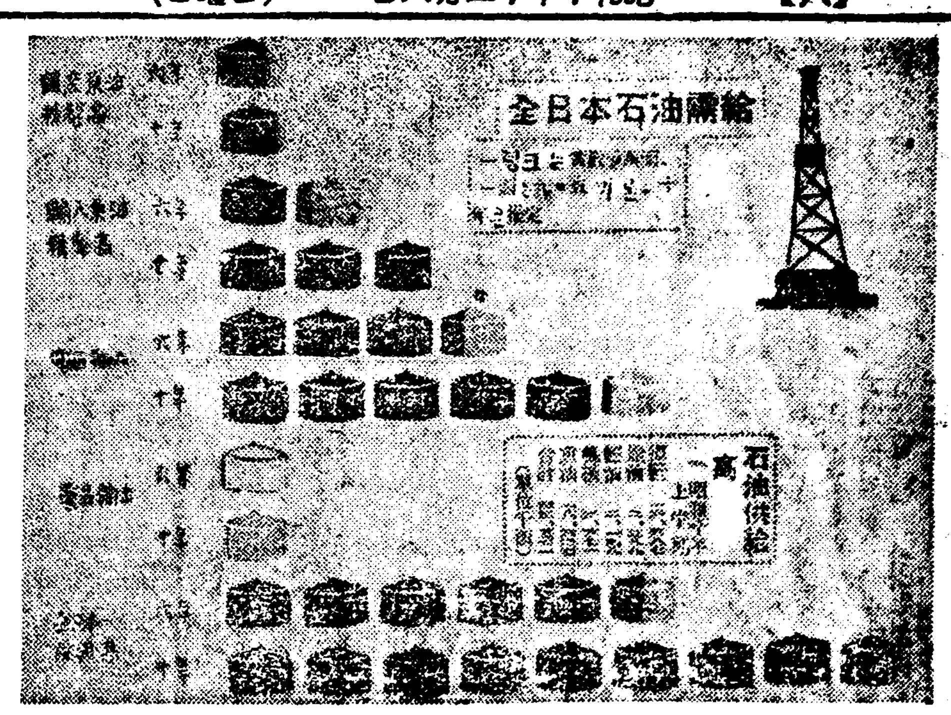
梅毒、體毒、痳毒、橫痃、濕毒、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류마티스、慢性皮膚病、梅毒性부스름、여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疾患等에 特히梅毒性疾患에良藥이옵。

藥價 六日分一圓・十二日半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四十二錢・代引十錢五厘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藤二
振替東京一〇五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日本石油支配權
◇…外油가 絶對掌握



石油資源을 싸고도는 列强의 爭奪에 있어 日本은 全然無力한 存在이나 그러나 石油에 對한 執着과 熱意에 이르러서는 어느나라에도 지지안는다 그만치 石油에 對한 關心은 現實의 큰問題로되어 잇다

×

昭和六年度 日本의 石油全供給量五千五百萬函에 對하야 日本産原油의 精製高는 一割五分의 八百六十二萬函 그것이 七年에는 六千五百二十三萬函에 對하야 九分九厘의 六百四十九萬函 八年度에는 六千六百七十七萬函에 對하야 겨우 七分九厘의 五百三十一萬函으로 되어잇스나 九年부터는 徐徐히 日本産油의 産出高도 增加하야 總供給量 七千八百四十九萬函에 對하야 日本産精製高는 八分三厘의 六百五十九萬函으로되고 十年上半期에는 千三百五十七萬函에 對하야 九分七厘의 四百二十四萬函으로 相當한 上昇을示하고 잇다 그러나 如何間 日本産原油의 精製高는 全需要量의 一割도 못되다 他의 九割强은 製品輸入이거나 或은또 精製用原油를 日本內地에서 精製한것이다 國防上으로는 勿論 産業上으로 볼지라도 新興日本의 石油에 對한 執着은 決코 우습일이 아니다

×

況次 日本産油의 當面的增估에 對하야서는 거이 期待할수업슴에 잇서서는 더욱 그러하다 前議會에서 石油業法의 制定을 보게되것도 이때문이오 또 六個月의 貯油義務履行을 中心으로 外油會社와 正面衝突을 하야 從來의 無制限主義를 放棄하고 第二期의 三個月貯油에 要하는 經費에 對하야 利子의 全額補償을하고 貯油實行의 期限도 九月末을 來年六月末까지 延期하지 안흘수업게된것도 이때문으로 要컨대 石油資源의 絶對性에서오는 悲劇이엇다

×

勿論 日本의 會社는 大體로 올며 게자먼은 狀態이엇스나 英米二大石油資本을 背景으로하는 스텐다-드、라이싱선의 外油二社는 營業上 必要치도안는 貯油、그리고 自己의 犧牲으로 日本의 國防上、産業上의 犧牲이되는 貯油、무슨 必要가 잇서서 이를 實行치안흐면 안되는가하야 頑强히 拒絶하얏다. 無理지안은 말일지나 하야 볼려면 하야보아라 困難한것은 日本이아닌가 하는 배장을 分明히 알수도잇섯다 이外油와의 交涉은 依然 明年으로 너머가게되엇다 또 이問題와는 表面上 別個로 론二錢五厘의 再値上이 經濟上 容認되고 他方 關稅의 引上이라는 新方針도 決定되엇다 그러나 石油國策確立의 急務와 外油依存의 …

家庭工業普遍化
商議가積極運動
賀田會頭決意로具體案計畫中
拓相도絶對贊意激勵

近年 特히 今年에잇서서 日本內地의大資本이 朝鮮으로 進出하야 大工業이 勃興되어 工業朝鮮의 盛運을 云爲하는 今日에 잇서 朝鮮人工業은 어떠케되느냐가 問題로 朝鮮人으로서는 資金을 모아가지고 남이 들읍서우면 하나라도 세워야하겟는데 그런可望이 업서 朝鮮人工業의 前途가 憂慮되든바 日本商議에 出席키爲하야 渡東하얏다가 七日아츰 歸任한 賀田朝鮮商議會頭는 日本內地의 景氣와 朝鮮實狀을 對照하고 硏究한 結果 朝鮮은 日本內地에 업는 地價騰貴로 因한 土地景氣까지 잇서 米價高、鑛價高로因한農村好轉과 아울러 好況인 此際 朝鮮의 家庭工業化에 對하야의 時期임을 깨닷고 商議로서에 資金化하야 勃興식힐 絶好가 卽 남어지資金을 家庭工業에 積極的으로 活動할것을 計劃하얏다.

賀田會頭는 말하되 『大工業에 對立하자는것이 아니라 家庭工業은 工業이라기보다 商業이다 商工一身同體의 實을 擧할수잇는것이 卽 家庭工業이니 商業者가 自身을 充實히하는 同時 副業인 家庭工業과 不離相職한 關係를 매저 서로 북도아가면 朝鮮은 家庭工業으로서 發達할 餘地가 充分하며 朝鮮의 實力이 農村으로부터 大衆的으로 생기게될것을 確信한다 그리하면 貿易도 改善되고 大工業發達에 侵害받음이 업시 獨立自尊의 實을 擧케될것이며 家庭工業普遍化는 中小商人의 振興策도된다』고.

賀田會頭는 以上과가튼方針下에 商議로서 今後積極的으로 이運動에 邁進하야 工藝指導所等 諸般施設에까지 着手할터이라는데 이意見에 對하야 齋藤拓相도 絶對贊意를 表하고 激勵한바가 잇섯다한다

朝鮮工産品 積極的進出
産業課長會議討議에서

旣報한 第二回各道産業課長會議는 去四日부터 三日間 商工獎勵館에서 開催되든바 産業에 對한 重要問題를 中心으로한 總督府의 諮問이잇슨데對하야 各道의 答申이잇섯는데 그主要한것은

一、産業組合擴充問題、工産品의 輸出及振興策等에잇서서 産業施設에對한 各道의 豫算不足問題가 論議되엇다。

그리고 諮問事項에잇서서

一、工業品年次計畫의 目標及計畫의概要、朝鮮內自給及輸出振興에對한 當局의增産年次計畫于先 各道가 가지고잇는 計畫을 모아 準備를하는中인데 이에잇서서 各道共히 豫算不足을 하는狀態이나 各道의 大體計畫은 如左하다。

▲京畿＝麻布(五個年二百五十萬圓)
▲忠南＝麻織物(輸入品廢止計畫)
▲全北＝莞草製品(五個年 二十萬圓)全州團扇(五個年 一百二十萬圓)南原團扇(五個年 二百萬圓)朝鮮紙、漉紙。
▲全南＝朝鮮紙 莞草製品。
▲慶北＝絹織物(五個年 二百萬圓)莞草製品、薄荷、朝鮮紙。
▲慶南＝綿織物、絹織物、和洋紙 陶磁器、세멘트、硝子製品、석냥、罐詰、알미늄、鹽。
▲黃海＝朝鮮紙
▲平南＝綿布、麻布、陶製品、고무、메리야스、菓子、羊毛加工品
▲平北＝織物(朝鮮人用 第一次五個年計畫 方今實施中)莞草製品 木工 蘆筵。
▲江原＝大麻布 食器。
▲咸南＝洋襪 掌中 澱粉 蘆草
▲咸北＝麻布、홈스펀 陶磁器。

二、輸出好望品生産助長 輸出獎勵策 朝鮮內 各工業은 全面的으로 勃興하야 特히 海外輸出品에對하야는 此際 根本統制及指導方針確立의 必要가잇슴에도 不拘하고 現在 輸出品은 겨우個個別的注文에 依하게된다 實情에鑑하야 至急히 海外市場調査及 海外需要의 硏究를할 必要가 잇는것으로 物産協會 貿易協會의機能擴充이 要望되며 朝鮮內의 輸出港은 外國航路의 系統의 實港에 依하야 集荷 輸途의 系統을 合理的으로 組織化할 方針이라한다。

三、農村産組의擴充計畫에關하야 農村經濟의 更新을 爲하야 産組活動을 全朝鮮的으로 擴充할것이나하는 問題에잇서서 殖産契를 第一線에세우는 一方 金組 金組聯事業部等과의 連絡을 緊密히하야 農村實情에 適合한方策을 講究할方針이다

그러고 産組擴充의 年次計畫과 如할은 事業의 性質에따라 困難한境遇도 잇슬것이나 可及的 右方針에依하야 實現하자는答申及討議가잇섯다고한다

滿銀의朝銀預金은 無利子로決定
滿銀의發行餘力增大

朝鮮 滿洲兩銀行의 業務協定에 依하야 滿洲中央銀行은 朝銀의要求에依하야 國幣를 交付하는代身으로 그와同額의 朝銀券을取得키로되고 中央銀行은 이것을 朝銀에預金키로되엇는바 그境遇 朝銀은 從來대로 右預金에對하야 利子를붓치기로되야 定期預金에對하야는 年四分의 公表金利를붓치고 其他當座預金、通知預金도 各各公表金利와가티 取扱키로되엇다 滿洲中央銀行은 發券高의 三割에相當한 正貨準備가 規定되나 그밧게保證發行은 別로 限度가 업스며 朝銀券에 預金한金圓을 準備로國幣를 發行할수잇게되엇슴으로 滿銀의發行餘力은 顯著히 增大되것이며 이點이滿洲國의대量融通金을緩和하는有力한基本으로되것이라고한다

米運賃은 當分不變
船會社軟化로

京濱移入商組合과 船會社의 京濱朝鮮米運賃改訂協議는 去月二十日以來 東京에서 隨時로하엿는데 最近 燃料의 軟化와 船腹不足緩和로 運賃引上의 急先鋒이든 澤山 辰馬의 兩會社가 軟化하고 이곳에 朝鮮商船의 所持側은 이에追隨하야 매우 無勢한 때문으로 協定은 停頓狀態이엇는데 이와가티 朝鮮米運賃은 當分間 現行대로 持續될 모양이라고한다

露積正租保險
最近契約激增

朝鮮火災保險會社의 露積正租의 保險契約高는 農倉、銀行、財保金融組合의것을 合하야 十一月末現在 約千六百萬圓에 達하고 昨年十二月十四日 現在의 千四百萬圓에 比較하야 이미二百六十萬圓이 늘엇는데 今月에 드러서 다시 保險契約이 每日殺到함으로 臨時社員 十三名을 採用하고 그整理에 夜間執務를 하는狀態로 今年의 露積正租保險契約高는 三千萬圓을 突破할것으로 觀測된다

米日爲替低落

【京城六日發聯合】六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八弗七十四仙으로 六仙低 買 二十八弗七十一仙으로 六仙低

清津漁港取締規則
七日付로府令公布

清津漁港取締規則은 府令第百四十三號로서 七日付 公布하야 明十一年一月一日로부터 實施에드러가기로되엇는데 同規則은 專用漁港의能率發揮를目標로한것이다
一、漁港內의 入港制限
二、漁港附屬區內의占用制限

經濟界消息

◯東京電燈七分配當＝【東京電話】東京電燈에서는 七日午前十時부터 本社에서 決算重役會를열고 利益金處分案(一分增配年七分)을決定한바 今月二十四日의 定期株主總會에 附議키로되엇다고

◯京城郵便局保險課事務室移轉＝京城郵便局의簡易保險業務는逐年膨脹하야 現在事務室이 狹隘함으로 이번에本町入口의前電話局廳舍를 修理하고 十二月九日에 移轉키로되엿다는데 同局의 保險受持契約은十一月末日現在에 二萬五千七百七十四件保險料二萬九千二百八十圓 保險金五百四十六萬三千七百五十圓이라고

商況(七日)

株式 上進이나 頭重

前場伸悩 今前場은 九週寄後 東新百七十四圓三十錢에까지 買進되엇스나 休日을압두고 高値買不緻하야 伸悩로 結局昨後引에比하야 五十錢高인 百七十三圓六十錢、大新三十錢高인百二圓二十錢、日産二十錢低인 七十一圓九十錢、朝新三十錢高인三十一圓七十錢에 各大引되고 拓新十四圓八十錢、十五圓二十錢에 反彈이엇다。

後場休會 後場은 土曜로例休인데 大阪短期氣配가 一、二十錢幅의 保合임으로 當地氣配도 大體不變이엇다

東新의掉尾戰
波瀾後큰市勢?

强氣가 捲土重來할는지 或은軟派가 雜株를 牽制의具로하면서 東新攻略의目的을 達成할는지 硬軟主力의 腰入이深甚한만큼 東新戰이 注視되는터인데 上旬先驅하야던東新이 이번에는 下의最終幕이될形勢도보이어 雜株下一巡後의東新은 年末市勢의 大勢를決할觀이잇서 硬派와의 對戰이如何한場面을 展開할지興味百%이다 觀者에依하야는 올느면 買加되고 波瀾이잇겟스나 그波瀾이끗나면 정말큰市勢란말도잇다。

無市勢論擡頭
凸凹市勢重複?

地方에 分散되엇던 株式이 都市로 集中됨은 큰市勢의 前兆라고 强氣는 인푸레行進曲에依하야 年末로부터 年始에 直한 큰市勢를 期待하는 反面 決算期에 直面하야 出株增加는 자미업는現狀이라하며 騎力에依하야 鐘新、郵船等을買上하고 東新買를封한 人造市勢는 生命、人絹等의沈靜으로、當然崩落이像想된다고 軟氣는主張하나 强弱雙方이 보는것가티 全體的으로 大幅騰落이업시조흔것은오르고 납븐것은 떠러지는 凸凹市勢의重復으로 年末戰을終하리라는 無市勢論도 잇다

大株取引所員 長短合併認可

【大阪電話商通】大株取引所로부터 申請中이던大株取引員의長短併에對하야서는 六日商工省에서 審議한結果 短期取引員의保證金을 定期取引員과가티 增額하야 長短을 兼營케함이 大株의 實情에 適合하다하야 大株側의 提案을기대려 長短合併에關한 定款改正을 認可키로內定하얏다。

金融債券發行
總額三百廿萬圓

金融組合聯合會 第一回金融債券發行에對하야過般來 本田金融部長이渡東하야 大藏省預金部와折衝中이더니 總發行額 三百二十八萬圓을 預金部引受로發行하고 期限은 十一月二十八日 短期肥料低利資金과 한가지로 受入하엿다 卽新債券은 一通 萬圓으로 決定하엿다 肥料資金은 短期資金으로 債券發行의形式에 依치안키로 되엇는데 新債의內容과 發行條件은 다음과갓다

一、高利債借換資金 二百十萬圓
一、自作農創定資金 百二萬圓
一、産業組合貸付資金 十六萬圓
(右는 五個年据置二十年의償還期限으로 發行利率은 年三分八厘)
一、肥料低利資金 六十萬圓
(一個年償還利率年四分)

▲朝取定期總會

朝鮮取引所에서는 來二十四日午後三時부터 下半期定期總會를開하고 左記利益處分案을附議하리라한다

當期純益金	二一五、五六一圓
前期繰越金	二、九九八
合計	二一八、五六〇
處分은如左함	
法定積立金	一一、〇〇〇
別途積立金	一〇、〇〇〇
所員退職基金	六、〇〇〇
役員賞與金	一三、〇〇〇
取引員共勵金	四、三一一
配當金(一割三分)	一五六、〇五五
(舊株一株三圓二十五錢 新株一株八十一錢二厘五毛)	
後期繰越金	九、一九三

今日財界(七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胡米	先限	二八〇三	二低
大阪朝米	先限	三〇七八	八低
⊕三等米	一石	二八〇〇	五低
京城一等白米百斤		一三〇五	不變
正租(仁川) 一斤價	上	八錢四厘五毛	
	下	八錢二厘五毛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三圓五十錢	十三圓六十錢
銀	二十七錢五厘	二十五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取	三二七	[illegible]
東新	一七三六	[illegible]
日産	七一九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二〇八三	[illegible]
大阪棉花	五四五	[illegible]
大阪人絹	五八五	[illegible]
大阪砂糖	一三六三	[illegible]
고무	現四錢五	[illegible]

實物株前場取引

▲北鮮製紙 一三五〇 ▲京南鐵道 二八一〇 ▲鐘水産新 一四〇〇 ▲朝鮮信託 一〇 ▲朝鮮鑛 三九八〇 ▲人造肥料新 四三五〇 ▲朝鮮二新 一九〇 ▲電化新 二九〇〇 ▲鮮滿新 九三〇 (取引高 三八〇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商通】內債는 依然閑散하야 伸悩이나 外債는 買人氣로 佛貨十錢、米貨四十錢이買進되고 新國債는 現出하얏다
甲五分利 一〇四、八〇
佛貨四分利 一八六、九五

期米 動意殆無 細刻

前場膠着 昨後場阪地三十圓八十四錢止와 共히二十八圓七十五錢에 據着止한 當市場은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七十九錢인 五丁低落을 捲하고 二十八圓七十二錢인 三丁低로 據始한後 阪地六節八十一錢으로 七十九錢까지 小弛하엿다가 八十四錢에 止場함을 伴하야二節七十五錢으로 七十一錢까지小弛하엿다가 七十四錢에 據着止하엿다

後場不變 後場은二十八圓七十二錢에 始場後 二節七十四錢으로 五節七十二錢에 細刻이고 七十三錢에 止場하다

그러저러年末
保勢로終始乎

産地農家의 絶對賣惜을 機로하야 頑强味를添하든各地市勢는年內에 實施하기로 旣히發表되엇든 政府米買上이 決定되지아니함에 얼마큼買氣解弛하야 阪地는 約三十丁의反落商地는 約二十丁의 反落을보이어 買上産地農家에서도 買上期待의失望的賣物이 업지안을뿐아니라 더구나 年末決濟의 關係로 賣惜하려야 賣惜할수업는 現狀에 잇슴으로 客月보담은 賣物이 多少增加될 모양이다 그럼으로 此에서 買方針만흘 固執할수도업고 又는 地方의 出廻가 多少增加되리라하야 賣安心도할수업는 狀態임으로 深人落도 期待할수업스며 此의 反映으로 反撥을 告하리라고도 謂키難하다 이러한 모든事情을 綜合하여보면 그러저러年末에 入하기까지 保勢로終始하지안을가한다

越年後春市勢
一考할問題!

請必稱正米市場에서는 産地農家의絶對賣惜으로 昨年同期보다 産地의 出廻가 稀薄하다고 하나去十一月中 朝鮮米의 日本內地移出은 仁川市場만이 二萬石이나增加되고 全朝鮮을通하여본다하면 十萬石이나 增加되엇슬뿐아니라昨今에入하야는 不知不識間에 産地의 出廻가 稍히 旺盛하야 思惑筋은 高米價時代의 到來를 期待하고 蓄積 入庫하야 中農以下의 絶對賣惜은 何疑問▲昨今正米市場의産地出廻가 稍漸增加되고 딸아서 思惑側의 蓄積入庫함을보면 客月보담은 地方賣物이 제법現出하는모양▲賣로 中農以上農家의賣惜은 例年부터의 行事임으로 問題視하지 안커니와 中農以下는 決濟를 하지 못할것도事實▲그러나 원악 二個年繼續의 大凶作을 窮하고서 安心賣할수도 업슬것이다▲그럼으로 深人落도 期待할수도업다 참아리低落을 待하야 買進하는지 그러치안으면 當分休戰하는것이 得意▲賣로 此年末까지는 此邊에서 그럭저럭하다가 越年하게될 모양

市場六感

株 今前場은 東新이百七十四圓三十錢에올랏스나 休日을압두고 利食과 高價買不緻으로 百七十三圓臺로 引後하야 依然伸悩 來週는若何?▲山一은 鐘新買에자미가나서 探算株를買煽하고 東新을買煽하는 一方 日産買方針으로 八面六臂의策動▲이런策動때문에도 리어 一般의投機熱을 冷却식힌다고 東京、大阪서는걱정하는모양▲흘리기로 有名한例의 都新聞의(や)の字場面觀을紹介하면▲日産은 아모리悲觀하야도 大底無疑이오 東新은三個月間好材料續出로 買하얏스니 玉整理必要라고 ▲이번에야 맛는냐? 또틀리느냐?▲東京서는二萬三萬의 大口注文이 續出하야 한번은 全面的爆發이잇고야 말것이오 四、五個月동안 月初가뻐하고 그後에 놉핫스니 이달도 中間지나서부터 春高로 爆發되리라는 樂觀論이잇다고▲爆發?崩落無市勢?二十日未滿의 年內에어떤演劇이 展開되랴노?

米 本月中에 實施한다고 벌서부터 떠들든 政府米買上은 結局시지 부지하는모양 그래서 市勢는 多少下押▲그러나 政府로서 早晚間에 實施할것만은 事實임으로 農家는 可謂식은밥두고 잡보일우는格으로 依然賣惜▲그러나 年末決濟期에 臨迫한 今日에잇서서

는光景이다 그러므로 今後 低落을 許하지안을뿐도하나 그러나 當期에는 此等의 思惑米는 越年後減退될것이며 딸아서 渡米化할 傾向도 이업지아니하므로 本月 三、四日頃의 現象과 如히 越年後에 떠 아닌 賣米減産을 加하지안홀가한다 米價의 前途가 悲觀할것만은 아니나 四圍의 事情으로 보아서 否定할수업는 일이나 그러나 內作의 米價라고해서 반드시 一氣反撥하지안는것도 또한 記憶하여둘일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地場强氣側 東京側 中國側
◆買方＝地場神戶側

各地正米

京城不振 休日을압두고서 賣方이 靜觀人氣로 取引이적고 市勢五錢 總合玄丸仁三等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弱含 依然 産地는下값이나 買方의指値低로 取引이 極端으로不振이오 期米低로 氣配五錢低의 鈍調를唱한 丸仁三等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十一圓七十三錢

釜山下向 政府失望人氣로 所持의氣勢 幾分 緩和되고 七千叺의 賣物이 賣米되어 一般買方의 低價狙로 比較的商談이 進하야 五九三一叺의 取引이 成立되고 市勢는 十錢下落인 角プ三等 二十八圓六十錢 四等 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二錢

大邱引緩 實行不立으로買氣後退로 伸悩이오 期米綿調移로 十錢引緩인 角ワ三等 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七圓九十錢 一等白米 十一圓

群山下押 氣配沈衰하야 期米軟弱을 移하야 取引이나 無活氣이오 氣配一聯로 十五錢低인 玄ク三等二十八圓五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木浦軟調 産地로부터 出廻가 업슴으로 使品의取引難에 落한 狀態이나 買上期待薄으로 氣配十錢低로 軟調唱인玄ホ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錢 一等白米 十二圓八十錢

市況 表

金融(七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對外匡替◆ ◆金買入價◆ 米穀(七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協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七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日本參粉市勢◆ ◆지카五期券◆ ◆鶴沖價◆ ◆朝鮮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式(七日) ◆朝取短期◆ ◆賣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現物◆ [illegible]

期米(七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大阪市中正米高◆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商品(七日) ◆大阪綿系◆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多摩錦	八·五〇	八·三五	八·二〇	—
仁川	銀坊主	八·四五	八·三五	八·二五	—
群山	銀坊主	八·二五	八·二〇	八·〇〇	七·八〇
木浦	雄町	八·一七	八·〇五	七·九五	八·〇〇
大邱	穀良都	八·三〇	八·一〇	七·九〇	七·五〇
鎭南浦	陸羽	八·〇〇	七·八〇	七·七〇	七·七〇
新義州	陸羽	七·八〇	七·四〇	七·〇〇	—
元山	陸羽(龜尾)	八·四〇	八·二〇	八·二〇	八·〇〇
咸興	陸羽	八·一〇	八·〇〇	七·七〇	七·七〇
馬山	穀良都	八·〇〇	七·九〇	七·六〇	—
平壤	陸羽	七·七〇	七·五〇	七·四〇	—
釜山	穀良都	八·三〇	八·一〇	八·二〇	七·三〇

金白·銀金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本局三三一六番
振替京城壹五四五番
地方注文 代金引換販賣應酬 要送料先金

金銀 賣買
獎金號
地方注文應酬要送料先金
京城府貫鐵洞一一二四
電話長光一五九九

德 金.銀.白金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地方注文 代金引換販賣應酬 要送料先金
京城府明治町

橫濱生命(改稱)
板谷生命
初年度より配當を確定する有利な保險
社長 板谷宮吉
東京 日本橋

金白金銀 分析賣買
金城商會
電話光化門二九三七番
地方注文 代金引換販賣應酬(要送料先金)
京城黃金町一丁目二十二番地

大都映畵巢鴨撮影所特作時代劇
中島寶三監督作品
海江田讓二、一人二役主演
◇江戶劍飛脚
遠山滿之助 春水麗子 久松玉城 燕東三郞 山吹德二郞 助演
パラマウント超大作豪華版堂堂한 不滅의名篇 ヨセフ・フォン・スタンバーク監督
ゲーリー・クーパー、マレーネ・デイトリッヒ主演
◇新版モロッコ
アドルフ・マンジュ、ウルリッヒ・ハウプトイーヴ・サザーン、フランシス・マクドナルド助演
灼熱한沙漠모롯코의밤사랑에 여먼異國의하늘、眞實한사랑을求하야서アミイ는外人部隊의뒤를千里의彼方에따랏다
大都映畵超特作現代劇
太田辰三監督作品
北貝禮子、佐久間妙子主演
◇浮世草春のめざめ
藤間林太郞、伊達三郞助演
櫻井町 電本 八七一
大正館